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어휘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송 경 미

2009년 8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어휘 비교 연구

지도교수 김 태 곤

송 경 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6월

송경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8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어휘 비교 연구

송 경 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태곤

이 연구는 「老乞大」라는 하나의 원본을 바탕으로 각각 16세기 초와 17세기 말에 언해·편찬됨으로써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이어지는 어휘를 한눈에 살피기에 이상적인 자료인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두 문헌에서 쓰이는 어휘를 비교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즉, 이 연구는 「老乞大」의 언해본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어휘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국어사적 특징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장에서는 고유어가 한자어로 변한 어휘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즉, 「翻譯老乞大」에서 고유어로 쓰이던 것이 「老乞大諺解」에서 한자어로 대체된 것을 살펴봄에 있어 고유어 구절의 한자어 대체와 고유어 어휘의 한자어 대체로 나누고 그 목록과 예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반면, 원래 고유어였던 것이 한자어로 변한 어휘 4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고유어의 고유어 대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모두 81건의 어휘를 추출해 내고 그 어휘의 양상을 두 문헌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 어형을 어떻게 달리하며 언해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표기법 변화, 어휘교체, 어휘소멸, 어형변화에 따라 나눌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국어사적 특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III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휘가 쓰인 예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비교 연구 결과 근대 국어 어휘는 중세 국어 어휘를 이어받으면서 언어 내적·외적 변화를 겪으면서 형성되는데 양자 간 어휘는 극심한 단절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유어에서 한자어로 대체되는 양은 근대 국어로 올수록 더 심해지는데 이는 언해자의 표기 태도, 어휘 선택 등과 관계한 것으로 보인다.

1) 이 논문은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目 次 >

<國文抄錄>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3
3. 선행 연구	4
II. 고유어의 한자어 대체	7
1. 고유어 구절의 한자어 대체	9
2. 고유어 어휘의 한자어 대체	12
III. 고유어의 고유어 대체	26
1. 表記法 변화	27
2. 어휘 교체	35
3. 어휘 소멸	54
4. 어형 변화	57
IV. 결론	69
<참고문헌>	73
<Abstract>	76

I. 서론

1. 연구 목적

임진왜란을 겪고 난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 후반, 이른바 개항기에 이르기까지는 대륙을 통하여 간접적이거나 서양문화에 접하게 되고, 국내적으로는 임진·병자 두 난을 겪으면서 實事求是의 학풍이 일어나 근대화에 눈을 뜨게 된 시기이다.²⁾

평민의식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지고, 왕성한 산문정신을 띠고 언문소설이 창작되면서 언어와 문자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지게 되었다. 말과 글을 통한 표현이 양반계급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한층 민중의 편에 가까이 다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국어의 표현은 더욱 다양해지고 현실에 접근하게 되어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된다.

조선 전기의 어휘가 관념적인 방향으로 확대되어 갔다면 근대국어 시기의 어휘는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어 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시기에 활발하게 창작된 언문소설, 사설시조, 판소리 사설의 어휘들로 설명된다.

한편 이 시대에 오면 상층문화로 한정되어 왔던 유교문화가 평민들 내면세계에까지 깊숙이 정착하게 되면서 국어에는 한자어가 더욱 많이 쓰이게 되고 문자 생활에서도 한자를 섞어 쓰는 경향이 짙어지게 된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노걸대(老乞大)’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노숙(老宿)한 중국인’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³⁾ 본문의 체재는 일정한 구절 단위로 나

2) 그렇다고 해서, 이기문(1986)은 중세어와 근대어와의 사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체변화의 요인이 임진란이 아니라고 한다. 종래의 국어의 역사적 연구가 지녀 온 가장 큰 편견의 하나는 중세어와 근대어 사이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변화를 임진란에 결부시킨 것이라면서, 임진란과 같은 전란이 언어 변화의 요인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문법상의 변화가 16세기말 임진란 이전에 일어났다고 한다.

3) 노걸대의 ‘老大’는 Kitai 또는 Kitat를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원래 이 말은 10세기 초부터 200여 년에 걸쳐 몽골 구만주 및 북중국의 일부를 영유하여 국가를 건설한 요(遼, 916~2236)의 몽골계 민족, 즉 거란인을 가리킨다. 이 명칭은 遼가 여진족의 금에 의하여 멸망한 후에도 북중국 및 그 주민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윽고 몽골인이 여진족의 금을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대하여 원을 세운 다음에는

는 백화문(白話文 ; 중국어 구어)으로 된 원문 아래에 왼쪽에는 정음(正音, 중국어 규범음), 오른쪽에는 속음(俗音, 중국어 현실음)을 달고, 해당 원문에 대한 우리말의 번역을 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체재는 중국어 학습의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老乞大」에는 고려의 상인 한 사람이 중국의 지방을 여행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중국인과 나누는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길을 가던 중 처음 만나는 중국인에게 “형씨, 어디서 오십니까?”와 같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고, 왜 길이 지체 되었나 등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漢文과 漢語를 배운 이야기, 스승 이야기, 通姓名하는 이야기, 장사 이야기, 여관에 들고 말먹이를 청하는 이야기 등으로 이어진다. 모두 회화체로 되어 있어 당시의 생생한 口語 자료를 제공해 준다.

「老乞大」는 본래 고려말에 처음 편찬된 듯하지만, 「老乞大」라는 서명은 「中世實錄」에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원래 한자로만 기술된 것을 中宗 시대에 崔世珍이 처음으로 諺解한 듯하다.⁴⁾

「老乞大」는 중국어 학습서로서 많이 이용된 책이므로 「翻譯老乞大」(1517) 간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원문의 改修와 개수된 원문에 대한 새로운 번역이 이루어져, 「老乞大諺解」(1670), 평양판 「老乞大諺解」(1745), 「清語老乞大」(1765)⁵⁾, 「蒙語老乞大」(1790)⁶⁾, 「重刊老乞大諺解」(1795) 등이 간행된 바 있다.

어휘 변천사는 통시적 연구로서, 변천 과정의 추적이 비교적 분명한 어휘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사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국어에서 어휘가 발달해 가는 일반적인 경향이나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 어휘 변천 과정을 추적하다 보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낱말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단어족(word family)이라 부른다. 같은 단어족에 속하는 말들은 형태나 기능상의 이질화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으로 내재하는 의미적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는 하나의 원본을 바탕으로 약 1세기 반의 거리⁷⁾를 두고 번역되

중국 및 중국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4) 「老乞大·老乞大諺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2003.

5) 노걸대를 清語(만주어) 학습서로 개편한 책이다. 본래 숙종 29년(1703)에 간행되었다고 하나, 지금 전하는 것은 영조 41년의 改刊本뿐이다. 정확한 이름은 「清語老乞大新譯」이다.

6) 노걸대를 몽고어 학습서로 개편한 책이다. 영조 17년(1741)과 영조 42년(1766)에도 간행했다.

7) 「노걸대」는 최초로 언해된 「번역노걸대」와 160여 년 뒤에 언해된 「노걸대언해」(초간), 또 그 후 70여 년

있으므로 주어진 자료를 비교한다면 언어변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의 어휘 변천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어휘 변천 연구는 고유어나 한자어, 외래어뿐 아니라 은어, 속어 등 유행어는 물론 전문어, 이미 쓰이지 않는 폐어까지도 주목하게 된다.

어휘의 변화를 다루는 작업은 작업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작업의 내용과 결과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어휘 변화의 원인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어휘 변화의 과정이라든가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변화의 과정에서 유의어들과의 가지는 경쟁 관계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의어의 역사적인 진행 방향에 관해서도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를 중심으로 두 문헌에 쓰인 어휘를 비교하고 변천 과정을 알아보는 문헌 중심의 방법론을 택한다.

먼저 어휘론의 연구는 어떤 영역이거나 어휘조사를 전제로 하므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를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해당 어휘를 찾아 1차 분류 작업을 한다. 1차 분류한 어휘 중에서 먼저 「翻譯老乞大」에서는 고유어로 표기되던 것이 「老乞大諺解」로 와서 한자어로 표기된 것을 추려내어 목록화 하고 이 때 한자어이긴 하나 한자어로 표기되지 않고 한글로 표기된 것은 피한다. 또 반복해서 계속 쓰이는 것도 모두 나열하지 않고 한 번만 그 쓰임의 예를 들어 제시한다. 그 다음으로는 고유어가 고유어로 변한 어휘들을 추려내어 목록화 한다. 이 작업에서도 역시 반복하여 쓰이는 것들은 모두 나열하지 않고 한 번만 그 쓰임의 예를 들어 제시한다. 1차 분류한 어휘자료를 기초로 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다시 2차 분류하고 어휘 변천 양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들을 살펴본다. 조사 과정에서 추출한 어휘가 다른 문헌에서 특이 사항을 보이거나 용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 예문도 함께 제시한

뒤에 언해된 「노걸대언해」(중간)와 50여 년 뒤에 언해된 「중간노걸대언해」가 있어 국어사적으로 비교·연구하기에 좋다.

다. 또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비교에 있어 「清語老乞大」와 긴밀한 연관을 보이거나 특이사항을 보이면 그 쓰임도 함께 제시한다. 어휘의 분류 작업이 끝난 후에는 남광우의 「고어사전」을 통해 그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조사하고, 그 후에 정광의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를 참고하여 어휘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어휘의 의미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사이에서의 변화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대국어에서의 쓰임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현대국어에서의 용례를 들고 그 의미를 제시한다. 이 연구에 있어 의문 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다음 문헌에서 보충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다.

「翻譯老乞大 卷 上」,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인, 1972.

「翻譯老乞大 卷 下」, 인하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영인, 1975.

「老乞大, 老乞大諺解(上·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2003.

3. 선행 연구

주지하다시피 노걸대의 내용은 주로 여행이나 교역에 관한 것이므로 현실성 있는 표현을 하기 위하여 어휘나 문장의 선택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호칭도 바뀌어져서 ‘高麗’는 ‘朝鮮’으로 개칭되고, ‘漢’이라는 이름 대신 ‘中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 시기이다. 따라서 노걸대 언해류 문헌에 대해서는 언해된 당시의 언어에 대한 공시적·통시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김문웅은 「老乞大諺解」(1670)와 「重刊老乞大諺解」(1795)를 비교함으로써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어휘변천상을 정밀하게 조사 연구하였다. 어휘변천만을 다루지 않고 그 형태의 변화나 음운의 변화까지도 함께 다루어 근대 국어의 표기와 음운(1984)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였다. 김완진은(1976)은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 대해 음운, 어휘, 문법, 문장면에 걸쳐 광범위한 연구를 하였다. 특히 김완진은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의 어휘 변천 과정 및 고유어의 한자어화에 있어서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오면서 보이는 국어사적 특징들을 나열하

면서도 언해자의 표기 태도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고유어가 한자어로 변한 것은 그 쓰임 즉,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사이에서의 사용빈도수를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 서재극(1967)은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를 비교하고 그 특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어휘변천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예문을 제시하지 않고 어휘 목록 나열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나타나는 어휘를 모두 나열함으로써 그 사용빈도수의 조사에는 기여를 했으나 어휘 변천과정에 따른 연구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老乞大」는 「朴通事」와 함께 고려시대부터 쓰여 오던 중국어 학습서로 강재진(1982), 이향주(1989)가 공식적인 관점에서 두 문헌을 비교 고찰하기도 하였다. 「老乞大」는 종종 「朴通事」와 비교 연구되는 문헌으로써 강재진(1982)과 이향주(1989) 역시 「老乞大」와 「朴通事」에서의 고유어의 한자어화의 증가율을 비교 연구하고, 각 문헌에서 쓰인 어휘도 함께 기술하였다.

형태론적 측면에서는 그 어느 측면에서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다음의 자료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이승욱(1973)은 「老乞大諺解」, 「蒙語老乞大」, 「清語老乞大」에서 나타난 조사와 종결어미를 고찰하고, 신한승(1992)은 老乞大諺解本들의 蒙古語系의 借用語와 漢語系 借用語의 영향 속에서의 어휘변천 과정을 비교 연구하기에 앞서 서법체계와 음운변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어휘변천 과정은 어휘 목록 제시에 그쳤다. 석주연(1998)은 「老乞大」와 「朴通事」의 이본들에 나타난 선어말어미 ‘-거/어-’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권숙도(1985)는 노걸대에서의 번역어에 나타난 서법어미에 대한 연구를 종결어미 위주로 하였으며, 손성지(1992)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 보이는 어미체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김형철(1977, 1980)은 형태와 활용을 중심으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희선(2007)은 「老乞大」의 형태론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나 연결어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연결어미의 종류와 의미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연결어미의 사용 빈도수를 뽑아내어 중세 국어에서 근대국어로의 연결어미 변화 모습을 두 문헌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백응진(1997)은 「翻譯老乞大」(1517), 「老乞大諺解」(1670), 「清語老乞大」(1765), 「蒙語老乞大」(1766)의 노걸대언해류⁸⁾ 자료를 비교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음

운대응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였다. 정광(2006)은 「原本老乞大」를 발굴하고 단행본인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를 펴냄으로써 노걸대 언해류 해석에 큰 성과를 보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老乞大」에 관한 연구는 언해본을 중심으로 하여 공시적·통시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老乞大」에 관한 연구는 형태론적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어휘 변천 과정에 따른 자료는 쉽게 찾아 볼 수 없었으며, 혹 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설명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노걸대언해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어휘 변천 과정을 살피고 그에 따른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16세기 초와 17세기 말의 국어의 어휘 연구에 일조를 하고자 한다.

8) 한문본 「老乞大」에 대한 각 시대별 언해본을 통틀어 ‘노걸대언해류’라고 한다. 중세국어 시기의 한글 문헌 자료는 諺解자료가 주종을 이룬다.

II. 고유어의 한자어 대체

우리나라에 한자·한문이 전래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국어 어휘 체계 속에 한자어가 침투된 것은 6세기 초부터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통일 신라 시대에 와서 정통한문이 널리 보급되었다.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뒤를 이었으나 당장 한자어 사용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라 때부터 지배하여 오던 불교가 고려 말에 와서 불교계의 타락으로 斥佛運動이 일어났다. 이러한 척불운동에 앞서 광종 때 과거제도와 成宗朝에 유교주의적 정치를 표방하고 실시함으로써 자연 詞章中心, 文藝中心의 경향이 나타났다. 충렬왕 때는 經史獎勵, 國學再建, 性理學의 유입 등으로 고려는 중국의 문물제도를 축소한 小中華의 성격을 띠고 정치·문화적으로 자주성을 잃었으며, 거기에 외환이 겹쳐 독자적인 문화 발전은 정체 상태에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고려 사회의 중심은 귀족을 비롯한 일부 식자 계층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는 신라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宋代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문학이 융성하여 귀족계급 사회에서는 한문만으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교적인 생활양식이 강요되어 일반 언중들도 한자어의 모방이 심화되어 한자어의 보편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실례는 신라 향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향가에서 한자어로 표기된 것은 불교어를 제외하면 다른 내용의 한자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麗朝의 작품 특히 식자층에서 제작한 別曲體 형식의 작품에서는 많은 한자어가 발견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한자어의 일반화는 고려 중기 이후에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자어의 보편화는 고려 중기 이후부터 조선조 초기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는 한자가 단지 우리말 표기수단의 차원을 넘어 언어의 기능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현전하는 最古의 문헌인 「三國史記」·「三國遺事」·「高麗史」·「大明律直解」등에 기록된 한자어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중세국어에 오면 한자어의 증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어 국어 어휘체계 속에 절대 우세한 자리를 잡고 있

어 고유어보다 훨씬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한자어의 유입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고유어로 표현된 구어체와 한자·한문으로 구사되는 문어체의 구별이라는 언문 불일치의 이중 언어생활을 초래하여 고유어보다 한자어 사용이 더욱 심화되었다.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내려오는 동안에는 고래의 순수한 국어 단어들이 눈에 띄게 없어져 갔다. 이 중에는 漢字語로 대체된 것이 많았다. 이를테면 岬(山), 又(江, 湖), 오래(門)와 같은 것들이다. 이들은 이미 고대로부터 있어 온 한자어의 침투가 매우 심각하게 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사이에서도 고유어가 한자어로 바뀐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翻譯老乞大」가 우리말 어사를 많이 쓰고 있는 데 비해 「老乞大諺解」의 표기법은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단순히 국어로 표기되던 것이 한자로 표기된 경우와 고유어가 한자어로 바뀌고 한자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이와 대립되는 것으로 한자어가 고유어로 바뀐 것도 있으나 이는 그 수가 매우 적다.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⁹⁾의 비교에서 <翻譯老>에서는 한자로 표기되던 것이 <老諺>에 와서 한자어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1) 屍身: 주검

- ㄱ. 즉제 게서 브리고 도망커늘 구의 屍身을 검시하고(번노 上28)
- ㄴ. 즉제 게서 브리고 드라나니 구의 主檢을 검시하고(노언 上2-16)

(2) 漢人: 한사람

- ㄱ. 네 이 여러 벌들히 양지 쏘 漢人도 아니오 쏘(번노 上50)
- ㄴ. 네 이 여러 벗들의 모양이 쏘 한사람도 아니오 쏘(노언 上3-20)

(3) 牙錢: 주름잡

- ㄱ. 一百 卍 닷냥애 牙錢 세稅錢이언메나 호노 네(번노 下18)
- ㄴ. 一百이로 卍이닷냥애 히오니 主름잡 글월 벗기논 갑시 얼머나 호노 네 손

9) 이하 「翻譯老乞大」는 <翻譯老>로 「老乞大諺解」는 <老諺>으로 약칭한다.

10) 이에 대하여 김완진(1976)은 모두 22件으로 그 예를 제시하고 있으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피하고, 한자어지만 한자로 표기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4件에 불과하다.

(4) 三絃子: 줄풍뉴

ㄱ. 더 三絃子 빼고 거즈말 흐는 놈 들홀 흐야 흐놀이며셔(번노 下54)

ㄴ. 더 줄풍뉴 빼고 거 좇말 흐는 놈 들로 흐여 놀이흐며셔(노언 下7-23)

이처럼 <翻老>에서는 한자어로 쓰이던 것이 <老諺>에 와서 고유어로 쓰이는 것은 4件으로 매우 적은 수이다. 이에 반해 <翻老>에서 고유어로 쓰이던 것이 <老諺>에 와서 한자어로 표기되는 것은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여기에서는 중복되어 쓰이는 한자어는 제외하였다. 또한 <翻老>와 <老諺> 모두에서 한자로 표기하고 있는 것도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老諺>에서만 한자로 표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자어의 증가 현상을 우리말 구절이 한자어로 바뀐 것과 우리말 어휘가 한자어로 바뀐 것으로 나누어 분류했다.

1. 고유어 구절의 한자어 대체

(1) 으뜸으로 봄: 主見

ㄱ. 으뜸으로 보미 잇느니라 네 므슴 으뜸보미 잇느뇨(번노 上5)

ㄴ. 主見이 잇느니라 네 므슴 主見이 잇느뇨(노언 上4)

主見은 ‘(자신의) 생각’이란 뜻이다. <老諺>에서는 ‘우듬보기’로 직역하였다. ‘우듬’은 중세 국어에서 ‘最高’, ‘나무줄기’, ‘밀바탕’, ‘實體’, ‘本領’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다. 이들 의미는 구상어나 추상어인데 모두 ‘사물에 으뜸’을 나타낸다. 이는 17세기로 오면서 ‘最高’, ‘나무줄기’, ‘밀바탕’의 의미로만 쓰여 의미가 축소되었으며, 18세기에는 그 의미가 더욱 축소되어 ‘나무줄기’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고 ‘最高’의 뜻만이 발견되고 간간이 ‘밀바탕’의 의미로도 쓰였다. 20세기에 와서는 ‘첫째’, ‘근본’과 더불어 ‘두목, 괴수’를 가리키는 단어로도 풀이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 말은 ‘最高’의 뜻과 ‘근본’의 뜻으로만 쓰인다.

(2) 사람업슨 덕: 無人處

ㄱ. 싸해 사름 업슨 딧 가 그 도즈기 그 나그내의 등의(번노 上29)

ㄴ. 無人處에 가 그 도적이 그 客人의 등을다가(노언 上26)

‘사름업슨 딧’에서 ‘-딧’는 ‘곳, 바, 장소’를 뜻하는 말로 의존명사이다. <飜老>에서 이렇게 쓰였던 말이 <老諺>에 와서 한자어 ‘無人處’로 언해하였다.

(3) 일 아는: 見識

ㄱ. 몸허리라 네 에엇비 너기고라 너는 일 아는(번노 上49)

ㄴ. 못허리라 네 에엇비 너기라 너는 見識이 잇는(노언 上44)

‘見識’은 우리말의 ‘識見’과 같은 의미이다. <飜老>에서의 ‘일 아는’이 <老諺>에서는 한자어 ‘見識’으로 쓰였다.

(4) 긋긋디 아니흐면: 不明

ㄱ. 잡사르미며 릭려기 긋긋디 아니흐면 엇디 능히 여기(번노 上51)

ㄴ. 잡사름이며 來歷 不明흐면 엇디 능히 유여히 여기(노언 上46)

‘긋긋디 아니흐면’은 ‘不明時’를 언해한 것으로 ‘긋긋디’는 ‘깨끗하다, 분명하다’의 뜻이다. ‘긋긋’ 역시 국어 어휘 특징 중 하나인 의성의태어의 발달 중 굳이 구분하자면 의태어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이를 구태여 ‘不明이’으로 언해한 것을 보면 언해자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칙칙’¹¹⁾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어득흔 수플: 黑林

ㄱ. 어득흔 수프리 곧 하덤이라 예셔 테 가매 당시론(번노 上60)

ㄴ. 黑林이 곳 夏店이라 예셔 테 감이 당시론(노언 上54)

‘어득흔’은 관형사로 ‘어두운’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뒤에 오는 체언인 ‘수

11) 後述할 고유어의 변천과정에서 다룸.

플'을 수식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플'은 분철표기인 '숲'의 연철표기 형태이다. 이를 <老諺>에서 한자어 '黑林'으로 쓰였다.

(6) 모매 니블 것도 업스며 이베 머글 것도: 衣食

ㄱ. 모매 니블 것도 업스며 이베 머글 것도 업스니(번노 下55)

ㄴ. 衣食이 업스니(노언 下55)

'모매 니블 것(몸에 입을 것)'은 한자어 '衣'로 '이베 머글 것(입에 먹을 것)'은 한자어 '食'으로 각각 <老諺>에서 언해되었다. 여기서 쓰인 한자어 '衣'와 '食'은 옷과 먹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국어에서의 쓰임과 차이가 없다.

(7) 실 ㄱ는: 細絲

(8) 구의나깃 은: 官銀

ㄱ. 은이 나도 엽다 내해 다 실 ㄱ는 구의나깃 은이라(번노 下14)

ㄴ. 은은 내게도 엽고 내하는 다 細絲官銀이라(노언 下14)

'실 ㄱ는 구의나깃 은'이 <老諺>에 와서 각각 '細絲'와 '官銀'으로 언해되었다. '細絲'는 '가는 실'을 의미한다. '구의'는 '官司'를 의미하는 즉, '관청' 정도의 의미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구의나깃 은'이 '官銀'으로 한자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9) 사름과 몰들: 人馬

ㄱ. 이 흐룻밤 자기에 사름과 몰들해 쓴거시(번노 上22)

ㄴ. 이 흐룻밤 잔 人馬에 쓴거시(노언 上22)

(10) 올흐니 외니: 是非

ㄱ. 늑딕 올흐니 외니 니르디 말라 이다이 용심흐야(번노 下43)

ㄴ. 늑의 是非 닐으디 말라 흐다가 이대로 용심흐여(노언 下43)

(11) 남진 겨집들: 男女

- ㄱ. 아니흐고 노릇히며 홍쫙여 놀며 보피히는 남진 겨집들(번노 下48)
- ㄴ. 아니흐고 노릇히며 홍쫙여 놀며 보피로운 男女로(노언 下48)

(9)~(11)은 각각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것으로 ‘사람과 말’을 의미하던 것이 <老諺>에 와서 한자어 ‘人馬’로, ‘옳다, 그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한자어 ‘是非’로,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던 것이 한자어 ‘男女’로 언해되었다.

(12) 미 흔 사람: 每人

- ㄱ. 슌 나치오 사름 네헤 미 흔 사르미게 집갑(번노 上23)
- ㄴ. 슌 나트이오 사름 네헤 每人에 집 갑(노언 上20)

(13) 미 흔 말: 每斗

- ㄱ. 콩 옛 마래 미 흔 마래 돈 쉬시기니 히요니(번노 上23)
- ㄴ. 거른 콩 옛말엔 每斗에 쉬나트이니 히요니(노언 上21)

(14) 밤마다: 每夜

- ㄱ. 헤오니 은 두돈을 쁘고 이 여섯 미리 밤마다 떡논(번노 上12)
- ㄴ. 헤오니 은 두 돈을 쁘고 이 여섯 미리 每夜의 떡논(노언 上12)

(12)과 (13)에서 보듯이 고유어 ‘미흔’은 <老諺>으로 오면서 ‘每’로 한자화 되었다. 한편 (14)에서와 같이 ‘-마다’라는 보조사가 ‘每’로 언해되기도 하였다.

(15) 효근집흔: 小絹

- ㄱ. 王京의 가 갑슬 언머의 팍는다 내 사는 갑슬 효근집흔(번노 上13)
- ㄴ. 王京의 가 언머 갑식 팍는다 내 사는 갑슬 小絹(노언 上13)

‘효근’은 ‘작은’의 뜻이다. <老諺>에 와서 그 의미에 맞게 ‘小’로 한자표기 하였다.

2. 고유어 어휘의 한자어 대체

(1) 니건희: 往年

- ㄱ. 빗잡슨 니건희 갑과 흐 가지라 흐더라(번노 上9)
- ㄴ. 빗잡슨 往年 갑과 흐 가지라 흐더라(노언 上8)

‘니건희’의 ‘니다’는 ‘往’의 뜻으로 ‘지난 해’를 말한다. 속된 말로 전년(前年)을 ‘年時, 上年, 年裏’라고 하고, 지나간 해를 통칭할 때에는 ‘往年, 舊年’이라고 한다.

(2) 흥정ㄹ슴: 貨物

- ㄱ. 뵤를 北京의가 폴오 쯤 므슴 흥정ㄹ슴 사 高麗人 ㅈ해(번노 上12)
- ㄴ. 뵤를 北京의 가 폴고 쯤 므슴 貨物을 사 高麗人 ㅈ히(노언 上11)

‘흥정ㄹ슴’은 ‘흥정(매매) 감(재료)’ 즉, 貨物을 말하는 것이다. ‘흥정흐라’의 의미를 당시 쓰였던 예문을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뵤는 흥정 버리는 거시니(法華 1:10)
- 서울도 아므란 흥정이 업더라(翻朴 上 53)
- 흥정 반(類合 下 29)

(3) 아슴: 眷黨

- ㄱ. 이 ㅈ도는 이 우리 아슴의 ㅈ거시니 데 즐겨 주디 아니커늘(번노 上19)
- ㄴ. 이 ㅈ도는 이 우리 眷黨의 ㅈ거시니 데 즐기디 아니커늘(노언 上17)

‘아슴’은 ‘친척’ 또는 ‘집안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老諺>에서는 ‘권당’으로 언해하였다. 권당은 역시 일가친척(眷黨)을 말한다. ‘아슴’은 17세기에는 ‘아음’으로 표기되다가 17세기 말에 소멸되고 ‘권당, 親戚’ 등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4) 어미: 母親

- ㄱ. 난 형테로니 우리 어미는 형이오 더의 어미는 아시라(번노 上16)
- ㄴ. 난 弟兄이로니 우리 母親은 형이오 더의 母親은 아이라(노언 上15)

<飜老>에서 ‘어미’로 언해되던 것이 <老諺>에 와서 한자어 ‘母親’으로 대체 되었다. 중세 국어에서 ‘어미’는 ‘母’를 나타내는 말로 平稱으로 쓰였고, 이 말의 敬稱으로는 ‘어마님’이 쓰였다. ‘어미’의 상대어는 ‘아비’이다.

한편, 20세기 초에 ‘어미’는 낮춤말로 쓰였다. 이는 ‘어미’의 敬稱이 ‘어마니’이고, ‘어마니’의 敬稱이 ‘어마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미’는 卑稱이 되고 만다. 따라서 20세기 초부터 ‘어미’는 ‘낮춤말’, ‘어마니’는 ‘보통말’, ‘어마님’은 ‘높임말’이 된 것이다.

(5) 도티고기: 猪肉

ㄱ. 스윗 짓 도마 우회 도티 고기 사라 가라 이 오늘 주인(번노 上20)

ㄴ. 쓰윗 집 도마엿 猪肉을 사라 가라 이 오늘 주인(노언 上18)

‘도티고기’는 한자어 ‘猪肉’으로 대체 되었는데 ‘돌’은 ‘猪’를 나타내고 ‘고기’는 ‘肉’을 나타낸다.

(6) 쫓님자: 地主

ㄱ. 진짓 도즈그란 잡디 못흐고 속결업시 쫓님자와(번노 上28)

ㄴ. 진직 도적은 잡디 못흐고 속결업시 地主와(노언 上25)

‘쫓님자’는 ㅅㅏㅎ + -ㅅ(무정체 속격) + 님자(주인)의 형태구성이다. <老諺>에 와서 地主로 쓰였다.

(7) 구윗: 官司

ㄱ. 성명은 상티 아니흐뉘터라 이제 그 도즈기 구윗옥애(번노 上30)

ㄴ. 性命은 상티 아니흐뉘터라 이제 그 도적이 官司옥애 번드시(노언 上27)

‘구윗옥애’는 ‘관아의 옥애’의 뜻이다. <老諺>에서는 ‘官司’로 쓰였다. 한편 <淸語>에서는 ‘官家獄’로 쓰여 좀 더 한자화 됐음을 보여준다.

ㄷ. 목숨은 오히려 傷치 아니했더라 시방 그 盜賊이 官家獄에(청어 上2-19)

(8) 혼닷: 一丈

ㄱ. 무슨 거시라 ㄹ장 기프니도 혼닷 기피 업서 다(번노 上36)

ㄴ. 무슨 거시라 ㄹ장 김프니도 一丈 김피 업서 다(노언 上32)

‘一丈’의 ‘丈’은 높이를 재는 단위로서 우리말에 ‘길’즈음에 해당된다. 한 丈은 10척이고, 약 3미터가 된다. 우리말의 ‘길’보다는 더 높은 단위다. <飜老>에서 ‘혼닷기피’로 언해되던 것이 <老諺>에 와서 ‘一丈’으로 언해되었다.

(9) 설다: 收拾하다

ㄱ. 이피 이러면 네 드레와 줄 서러 내여 오고려(번노 上31)

ㄴ. 이피 이러면 네 드레와 줄을 收拾 하야 내여 오고려(노언 上28)

‘서러’는 원문 ‘收拾’의 번역이다. 여기서는 ‘(두레박과 줄을)수습하여’의 뜻인데 원문의 한자가 <飜老>에서 ‘서러’로 번역되었던 것이 <老諺>에 와서 다시 收拾으로 바뀌었다.

한편, ‘설다’는 ‘整理’의 번역으로 ‘정리하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했다. ‘설- (整)+ -어(연결어미) + 보-(見) + -아지라(願望形)’의 형태구성이다. ‘설다’는 ‘거두다, 설거지하다’의 뜻이 있었고 이것이 ‘설엇다’가 되고 현재는 ‘설거지하다’로 쓰인다. 따라서 ‘설다’는 ‘설거지하다’의 ‘설-’의 어원이기도 하다.

(10) 나드리: 出入

ㄱ. 썩라 가고져 호니 이 빠 어두은딤 나드리 쉽사디(번노 上55)

ㄴ. 썩라 가고져 호디 이 저므러 어두은딤 출입이 편당티(노언 上49)

현대국어의 ‘나들이’를 분철표기하지 않고 연철표기 했다. ‘나드리’를 <老諺>에서 ‘출입’이라고 언해하고 한자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다음 예를 보면, <淸老>에서는 ‘출입’을 ‘出入’으로 한자로 표기했다.

ㄷ. 쭈라 가고져 호티 이 저므러 어두온티 출입이 편당티(청어 上51)

(11) 쉽살다: 便當하다

ㄱ. 쭈라 가고져 하니 이 빼 어두온티 나드리 쉽사디(번노 上55)

ㄴ. 쭈라 가고져 호티 이 저므러 어두온티 출입이 편당티(노언 上49)

‘쉽살다’는 ‘쉽다, 만만하다’의 의미이다. <飜老>의 ‘쉽살다’가 <老諺>에서 한자어 ‘便當’으로 언해되었다.

다히 마지 쉽사디 아니타(老朴集 單字解 5)

(12) 묻다: 盤問

ㄱ. 자세히 묻져주고사 ㄹ 노하 보내느니 제 만이레(번노 上51)

ㄴ. 자세히 盤問호고야 ㄹ 노하 보내느니 저희 만일에(노언 上46)

‘盤問’은 ‘몇 번이나 詰問하는 것’이란 의미로 <飜老>에서의 ‘묻져주고사’를 한자화하여 언해한 것이다. 『老覽』에 『吏學指南』을 인용하여 “再三窮詰함”이라고 설명하였다.

(13) ㄹ는실: 細絲

ㄱ. 엇디 브료 이 은을 므스글 썰이는다 ㄹ는시리(번노 上65)

ㄴ. 엇디 브리오 이 은을 므서슬 썩리는다 細絲(노언 上58)

‘ㄹ는실’은 원문의 ‘細絲兒’를 언해한 것으로 ‘가는 실(絲)’의 뜻이다.

(14) 샹옛말슴: 常言

ㄱ. 샹·넛 :말·소·매 닐·오·티 ㄹ샹샹 도죽 ㅁ슴·물 막·고 ㄴ·ㅁ(번노 上34)

ㄴ. 常言에 닐오티 샹샹의 도적 ㅁ슴을 막고 ㄴ의(노언 上30)

‘샹옛말슴’을 16세기에 와서 ‘常言’이라고 한자어로 언해했다. 16세기에 ‘샹옛

말씀'은 활발히 쓰였던 말이다.

(15) 이성스촌: 姑舅

- ㄱ. 잇느니 다 아스미라 하나흔 이성스촌 형이오 하나흔(번노 下5)
- ㄴ. 이쇼되 다 권당이니 하나흔 姑舅의게서 난 형이오 하나흔(노언 下5)

‘姑舅’는 ‘고종사촌’을 말한다. 중국어에서는 父系의 자매에 해당되는 고모를 ‘姑姑’라 하고, 母系의 형제에 해당되는 외숙을 ‘舅舅’라고 한다. 한 쪽의 부친과 또 한 쪽의 모친이 형(兄)과 매(妹), 자(姉)와 제(弟)의 관계가 되는 算寸을 姑舅兄弟라고 한다.

(16) 뵤잘: 布垚

- ㄱ. 이러면 뵤잘의 은 가져다가 즈르믈 몬져 뵤라 너폴리(번노 下14)
- ㄴ. 이러면 布垚엿 은을 가져다가 즐음으로 몬져 뵤라 너 흐는 님재(노언 下13)

‘뵤잘의’는 원문 ‘布垚’의 언해이며 ‘베자루, 베로 만든 포대’를 뜻하는데 ‘뵤+자르’의 語構成이다.

(17) 즈믄: 千

- ㄱ. 즈믄 뽏거시 흐 무들기만 곤디 못흐니 도르혀 더 사름물(번노 下8)
- ㄴ. 일천 거시 흐 무들기만 곳디 못흐니 도르혀 더를(노언 下7)

‘즈믄’은 주지하다시피 ‘千’에 대응하는 고유어이다. 한자어의 수가 증대하면서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에 유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들은 유의 경쟁을 벌이면서 어느 한 쪽이 폐어가 되거나 의미가 변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은 한자어였다. ‘ㄱ름, 뵤ㅎ, 아슴, 온, 잣’ 등이 ‘강 산, 종족, 백, 성’에 밀리면서 폐어가 되었듯이 ‘즈믄’도 ‘천’에 밀리면서 폐어가 된 것으로 보인다.

ㄷ. 千 조각이 흰 덩이만 낫지 못하다 흥여시니(청노 下5-12)

<老諺>에서는 한자어로 표기하지 않고 ‘일천’이라고만 표기되던 것이 <清老>에 와서는 ‘千’으로 한자표기 하였다.

‘은’과 ‘즈믄’이 밀린 이유는 한자어 ‘百’과 ‘千’에 밀린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큰 단위의 수를 헤아릴 필요가 별로 없었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8) 녹무새: 菜蔬

- ㄱ. 간대로 머그라 아프란 니근 녹무새 잇거든(번노 上40)
- ㄴ. 간대로 먹으라 아프란 니근 菜蔬 잇거든(노언 上37)

‘녹무새’는 음절단축으로 현재는 ‘남새’로 주로 반언에서 쓰이는 말인데 위에서와 같이 <老諺>에서는 菜蔬로 교체되었다.

(19) 다대: 達達

- ㄱ. 다대 아니니 모로리로다 어딿 사름로 내 엇디(번노 上50)
- ㄴ. 達達도 아니니 모로리로다 엇던 사름고 내 엇디(노언 上50)

‘達達’은 몽고의 한 부족인 ‘타타르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몽고 사람을 총칭하는 말로 ‘타타르인’을 사용하였는데 <飜老>에서 ‘다대’로 언해되던 것이 <老諺>에 와서 ‘達達’로 한자표기 되었다. 이는 「事林廣記」(和刻本) 「庚集」(권10) ‘至元譯語’에 “達達 蒙古歹”라는 구절이 있어 몽고인을 중국어로 ‘達達’이라고 말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²⁾

(20) 닷분: 五分

- ㄱ. 닷 분만 도흔 은을 밧고와 주면 곧 울커니썸냐(번노 上65)
- ㄴ. 五分 도흔 은을 밧고와 줌이 곧 울커니썸냐(노언 上65)

12) 정광(2006),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p.176.

‘다섯’을 뜻하는 말로 ‘다섯, 다습’ 등이 쓰였는데 ‘닷’은 관청자로 쓰일 때 나타난다. 이 말이 수량 단위 명사 ‘分’과 합쳐지면서 <飜老>에서 ‘닷분’이라고 언해되던 것이 <老諺>에 와서는 ‘五分으로 한자화 되었다.

‘닷분’에서 ‘닷-’은 앞서 말했듯 ‘五’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섯’을 의미하며 현대 국어에서 쓰인다.

(21) 종: 奴婢

- ㄱ. 사돈짓 아즈미 브리는 종들(번노 下34)
- ㄴ. 사돈짓 어미 겨집 동싱 브리는 奴婢를(노언 下34)

위에서 보다시피 ‘奴婢’는 현대 국어에서 쓰이는 한자어이다. ‘종’은 현대 국어에서도 ‘종’의 형태로 쓰이는 어휘이다.

(22) 아리: 往年

- ㄱ. 아리는 그저 세 돈에 혼 근시기러니 이제는 풀리(번노 下2)
- ㄴ. 往年은 그저 서 돈에 혼 근식이러니 이제 풀리(노언 下2)

(23) 아리: 在前

- ㄱ. 아리두곤 두자히 놓고 석 자히 어위오 법다이(번노 上26)
- ㄴ. 在前애 비컨댄 두 자히 놓고 석 자히 너르니 법다이(노언 上26)

‘아리두곤’은 ‘아래(前) + 두곤(비교를 나타내는 조사)’의 형태구성으로 여기서의 ‘아래’는 ‘전보다, 전에 비하여’의 뜻이다. 그 쓰임에 따라 각각 한자어 ‘往年’과 ‘在前’으로 쓰였다.

(24) 일: 道理

- ㄱ. 이리어니 썩나 우리 번 지서 든룰디면 너 사오나오니(번노 下46)
- ㄴ. 道理어니 썩너 우리 벗 지어 든닐작시면 너 사오나오며(노언 下46)

<飜老>에서 ‘일’로 쓰이던 것이 <老諺>에서 한자어 ‘道理’로 언해했다.

(25) 도덩: 朝廷

ㄱ. 네 니르라 내 드로마 이제 도덩이 텃하를 一統하야(번노 上5)

ㄴ. 네 니르라 내 드르마 이제 朝廷이 天下를 一統하여시니(노언 上5)

‘도덩이’는 <老諺>으로 오면서 ‘朝廷’으로 표기되었고 이는 즉, ‘元朝’를 말하는 것이다.

(26) 나그내: 客人

ㄱ. 짜해 사름 업슨 텃 가 그 도즈기 그 나그내의 등익(번노 上29)

ㄴ. 無人處에 가 그 도적이 그 客人의 등을다가(노언 上29)

‘나그내’가 <老諺>에 오면서 ‘客人’으로 한자화 된 것이다. ‘客人’은 ‘가게를 갖고 있지 않은 상인 즉, 행상인’을 말한다. 한편 이와 대립되는 것으로 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은 ‘舖家’라 하였다.

(27) 바품은: 八成

ㄱ. 바품은이로소니(번노 上64)

ㄴ. 八成은이니(노언 上64)

‘바품은’은 원문 ‘八成銀’을 언해한 것이다. <老諺>에 와서 ‘銀’은 한자로 표기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하고 ‘바품’만을 ‘八成’으로 한자화 하였다. 이는 ‘팔푼은’을 말하는 것으로 ‘함량이 모자란 은’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8) 힘내: 氣力

ㄱ. 힘내 뼈 든니디 아니하면 흐르도 사름 도의디(번노 下43)

ㄴ. 氣力을 내디 못하여 든니면 흐르도 사름 되디(노언 下43)

<飜老>에서 ‘힘내’로 쓰이던 것이 <老諺>에 와서는 ‘氣力’으로 한자화 되었다. ‘氣力’은 ‘弓力 즉, 활의 發射力’을 말한다. 그 궁력의 측정법은 『天工開物』(15권) 「弧矢」조에 있는데 강한 것은 120斤, 약한 것은 그 절반이라고 한다. 12

근을 ‘一箇의 氣力’이라고 하여 공력의 기본 단위로 한다.

(29) 노연네: 官人

- ㄱ. 종 도의여 잇는 사르믄 노연네 조차 든닐제 여기 더기(번노 下45)
- ㄴ. 종 되어 잇는 사람이 官人을 조차 든닐제 여기 더기(노언 下45)

‘노연네’는 ‘노연(使長)+ -네(복수)’의 형태구성으로 ‘웃어른들, 상전들’의 뜻이다. 여기서는 ‘上官’을 말하는 것으로 <老諺>에 와서 ‘客人’으로 한자화 되었다.

(30) 실애: 鋪陳

- ㄱ. 당을 썰리 티고 실애 그즈니 실오 방의 올마 들오(번노 下45)
- ㄴ. 帳을 썰리 티고 鋪陳을 정제히 호고 방의 올마 들거든(노언 下45)

‘실애’는 원문 ‘鋪陳’의 언해로 ‘까는 것, 침구’를 말한다. <老諺>에 와서 다시 ‘鋪陳’으로 언해되었다. 이는 원래 ‘나란히 늘어놓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요, 이불 등의 寢具’를 말한다. 『連環計』 「雜劇」 3折에 “鋪陳을 收拾하여 나는 夫人과 憩息(歇息, 쉬다)하자”라는 구절이 있다.

(31) 시란: 膝欄

- ㄱ. 초록 면듀 한옷과 금으로 싸 시란흔 한옷과(번노 下50)
- ㄴ. 초록 면듀 핫 옷과 금으로 𑖧 膝欄흔 핫옷과(노언 下50)

‘시란흔’이 <老諺>에 와서 ‘膝欄흔’의 한자로 언해되었다. ‘膝欄’은 ‘柳靑膝欄’의 ‘버드나무빛 푸른색(柳靑)’의 ‘스란(膝欄)’을 말한다. 여기서의 ‘膝欄’은 치마의 옷감으로 무릎썸에 무늬를 놓은 비단을 말한다.

(32) 회무로: 黑綠

- ㄱ. 비단 너븐 주름 털릭과 더른 한져구리와 회무로(번노 下51)
- ㄴ. 비단 너븐 주름 털릭과 더른 핫옷과 黑綠(노언 下51)

‘희무로’는 원문 ‘黑綠’의 풀이로 <飜老>에서 고유어로 언해하였다가 <老諺>에 와서 다시 한자로 언해하였다. 이는 ‘검정과 초록의 間色의, 쇠빛의’의 뜻이다.

(33) 우리: 小人

- ㄱ. 이는 성이 李개니 이는 우리 어미 동상의게(번노 上16)
- ㄴ. 이는 姓이 李개니 이는 小人의 어미 동생의게(노언 上16)

‘우리’와 ‘小人’은 인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小人’은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일인칭이다. 한자어 계통의 일인칭 대명사에는 ‘小人’ 외에 ‘朕(天子가 스스로를 일컫는 것), 寡人(왕이 자기를 낮추어 말함), 本人(연사가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 小生(주로 편지 쓸 때 자신을 낮추는 말)’ 등이 있다.

(34) 게으르다: 懶惰

- ㄱ. 간곡하고 아니 완출하고 게으르기들 말라 관원 앓피(번노 下43)
- ㄴ. 姦猾하고와 懶惰티 말라 관원의 앓피(노언 下43)

<飜老>에서 ‘게으르다’가 <老諺>에서 한자어 ‘懶惰’로 언해되었다.

(35) 드림: 鍾

- ㄱ. 밍꺸니오 저웁 대 저웁드림 저웁 눈 저우렛(번노 下69)
- ㄴ. 밍근이오 저웁대 저웁鍾 저웁 눈 저웁(노언 下62)

‘저웁드림’은 저울추를 의미한다. <老諺>에서는 ‘저웁’이 ‘저울’로 표기되었다. 여기에서는 ‘드림’이 ‘鍾’로 한자화 되었다. 한편 「鷄林類事」에서는 다음과 같이 ‘저블’로 쓰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블>저블>저울’로 변화하였다.

秤曰雌亨(鷄林)

말 놀이며 저울 도되요문(法華 7:120)

거우뤄 뷔며 저우리 ㅈ흙 ㄹㅎ야(金三 2:64)

權은 저웁드림쇠니 ㅎ 고대(釋普 13:38)

(36) 설혼 두: 三十二

(37) 설: 歲

ㄱ. 小人은 나히 설혼 다숫설 小人은 앓가사 설혼 두 설(번노 上64)

ㄴ. 小人은 나히 설혼 다숫시라 小人은 엇디 又 三十二歲라(노언 上57)

<飜老>에서 ‘설혼 두’와 ‘설’이 <老諺>에 와서 각각 ‘32세’를 의미하는 한자어 ‘三十二’와 ‘歲’로 언해되었다.

이상 <飜老>에서 고유어로 언해되던 것이 <老諺>에 와서 한자화 된 어휘 목록을 살펴보았다.

한자표기의 경향은 <老諺>이 <飜老>의 약 2.5배를 이룬다.¹³⁾ 두 시기, 즉 <飜老>와 <老諺>의 한자 사용에 있어 그 기준을 재고자 할 때 시간이라는 요소 이외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飜老>의 後行 문헌인 <老諺>이 표면상 한자표기가 증가했음을 시간적 요소가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텍스트의 내용, 언해자의 표기 태도 등과도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 국어에는 고대 국어 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부터 한자어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한자어는 국어에 차용되었다. 현대 국어에서는 전체 어휘 중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유어보다 더 크다. 국어의 60% 이상이 한자어로 우리는 이에 대하여 [+ sino] 자질¹⁴⁾을 부여하기도 한다.

중국어로부터 단지 한자만 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文語인 한문을 빌려 우리 말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의사 전달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오랫동안 한문 또는 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자어가 국어에 많이 밀려들게 되었다. 후기 중세국어에서부터 근대국어로 이르기까지 그 현상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같은 텍스트에 대해 시대를 달리하는 諺解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텍스트에 대한 시대를 달리하는 諺解는 <飜老>와 <老諺> 외에도 몇 가

13) 강신항(2000), 「國語의 譯學」, 서울대학교출판부, p.189.

14) 국어에서 60 % 이상이 한자어이다. 이에 국어의 통사 구조에서 연결 관계가 자연스럽게 못하면 한자어 때문이라고 하고 이에 [+ sino] 자질을 부여한다고 한다.

지가 더 있는데, 釋譜詳節과 法華經諺解, 大學諺解의 栗谷本과 官本 등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서도 한자 사용량의 차이를 목격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翻老>보다 <老諺>에서 한자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중세국어 문헌에서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됨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똑같이 한자를 혼용한 문장이라고 해도 한자가 차지하는 정도, 즉 어떠한 것은 한자로 쓰고, 어떠한 것은 한자어라도 한자를 표기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선택의 기준 또는 경향 등은 표기자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때, <翻老>에서의 한자어 사용보다 <老諺>에서의 한자어 사용을 더 많이 보이는 이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어 및 그 표기의 통일을 위함이다. 崔世珍의 翻譯에서는 한자로 썼다 한글로 썼다 하며 표기에서의 일률성을 확보하지 못했었다.¹⁵⁾

둘째, <翻老>와 <老諺>은 중국어 학습서인 「老乞大」의 번역이므로 <老諺>에 와서 가능한 중국어 텍스트에 보이는 한자어로 통일하려 했었음을 들 수 있다. 언해문은 원문인 한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문헌으로 원문을 충실히 언해문에 반영하기 위하여 직역한 흔적이 강하다. 한 차례 언해됐던 문헌이지만 의역이 많아 후에 다시 직역 위주의 언해가 새로 이루어질 정도로 국어사에서 직역투의 언해문 문장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¹⁶⁾

셋째, <翻老>에서 사용한 語彙가 소멸 혹은 소실되어 한자어로 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앞에서 고유어가 한자어로 변함에 있어 부연설명을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翻老>와 <老諺>에 있어서의 한자어 사용의 증가 요인은 위에서 제시한 3가지로는 그 복잡미묘한 원인들을 다 밝힐 수는 없다. 따라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문헌에서 한자어로 나타났으나 <翻老>에서 한글표기 되던 것이 <老諺>에 와서 한자표기 된 것이 있는데 참고로 제시한다.

15) 그러나 중종 12년(1517)경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를 언해(「翻譯老乞大」)하고, 이 책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원문에 대한 언해가 현종 11년(1670)에 다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이유가 성립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16) 국어사에서 ‘翻譯’이라는 용어보다는 ‘諺解’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언해문들이 국어로 옮긴다는 의미에서의 완전한 번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1) 학당: 學堂

ㄱ. 네 미실 모습 이력흐는다 미실 이른 새배 니러 학당의 가(번노 上2)

ㄴ. 네 母日 모습 공부흐는다 母日 이른 새배 니러 學堂의 가(노언 上2)

‘學堂’은 元代에 ‘아동들을 가르치는 민간 학교’ 즉, ‘서당’을 의미한다. 『合同文字』 「雜劇」 ‘이절’의 대사에 “開着個學堂, 教幾個蒙童過日-학당을 열고, 몇 명의 아이를 가르치며 날을 보낸다.”라는 예가 있다.

(2) 스테: 體禮

ㄱ. 우리 혼 가짓 스테 모르는 사람들히(번노 上16)

ㄴ. 우리 혼 뉴는 體禮 모르는 사름이니(노언 上16)

‘스테’는 ‘사체(事體)’, 즉 ‘사리와 체면’이란 뜻으로 언행이 이치에 합당하며 체면을 지키는 일을 말한다. <老諺>에 와서는 ‘體禮’로 한자화되었다.

(3) 던회: 田禾

ㄱ. 던회 거두디 못하야 간난흔 전츠로 아니완흔(번노 上27)

ㄴ. 田禾를 거두디 못흐니 飢荒흔 전츠로 아니완흔(노언 上24)

‘던회’는 한자어로 ‘田禾(밭곡식)’을 말하는 이는 <老諺>에 와서 ‘田禾’로 한자화 되었다.

Ⅲ. 고유어의 고유어 대체

독일의 언어 철학자 Schleicher는 “언어는 진화하는 일종의 유기체”라고 했다.

어휘사적으로 보면, 단어의 군집들은 동일한 어형끼리 경쟁 관계를 갖게 되고, 유의적 의미끼리 경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흔히 동음 경쟁(homonymy)과 유의 경쟁(synonymy clash)이라고 일컫는다. 언어 내부에 있어서도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힘의 논리가 존립하는 것이다. 동음 경쟁이나 유의 경쟁에서 힘이 센 쪽이 살아남고 힘이 약한 쪽이 도태되어 퇴화하는 것은 자연적인 철칙이다. 어휘들의 생멸은 이와 같은 숙명적인 줄다리기의 결과 얻어지는 산물이다. 그런 한편, 상호 간의 경쟁에서 서로 타협으로 쌍방이 공존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한편 언어는 보수적¹⁷⁾인 힘이 있어 변화를 꺼리는가 하면, 개혁적인 성향이 있어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언어의 여러 가지 부문 중 가장 보수적인 것이 문법 부문이고, 가장 개신적인 것이 어휘 부문이다. 어휘는 문화적 맥락에 따른 변개와 생멸의 빈도가 매우 높다. 때로는 부족한 것을 외국어로부터 차용하기도 하고, 어휘 상호 간의 간섭과 감염에 의해 형태나 의미를 바꾸기도 한다.

노걸대의 諺解本들이 蒙古語系의 借用語와 漢語系 借用語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再論할 여지가 없다. 중세국어의 語形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翻譯老乞大」와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老乞大諺解」는 또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 借用語가 歸化語로서 변용되었음도 간과할 수 없다.

근대 국어 어휘는 중세 국어 어휘를 이어받으면서도 언어 내적·외적 변화를 겪으며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근대 국어 어휘는 중세 국어 어휘와 극심한 단절을 보이지는 않는다. 중세 국어 시기에 사용되던 어휘가 상당수는 그대로 근대 국어로 이어진다. 중세 국어에서 이어받은 어휘의 형태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였

17) 언어의 보수성이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 이전의 모습을 간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가 더 강한데, 한자라는 표기가 매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가 덜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으며,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어휘에 관한 기술은 다른 영역에 관한 기술과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다. 어휘에 관한 기술에서 특히 중요한 어휘의 생성은 형태론에서의 기술과 대부분 중복된다. 음운에 관한 논의에서도 단어를 단위로 하여 기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문법에 관한 논의에서도 단어를 단위로 하여 기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또한 어휘는 특정한 어휘장(lexical field) 속에 놓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어휘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크게 의미적 상관관계와 형태적 상관관계로 구별되는데, 의미적 상관관계는 동위관계와 상하관계에서, 형태적 상관관계는 동음관계와 類音관계에서 나타난다.¹⁸⁾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유어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 그 모습이 크게는 표기법의 변화로 인해 바뀐 것, 어휘의 교체로 인해 바뀐 것, 어형의 변화로 인해 바뀐 것, 의미의 변화로 인해 바뀐 것, 어휘의 소멸로 인해 바뀐 것으로 나누고 좁게는 그 어휘의 변화에 따라 보이는 규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른 문헌에서의 용례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表記法 변화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이어지는 어휘 변천을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는 아예 단절된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즉,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특징이 근대국어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근대국어의 특징이 현대국어의 특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를 거쳐 현대국어가 성립되기까지 국어사적 특징들을 표기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수 있다.

1) 分綴表記

(1) 녀르메: 녀름

ㄱ. 녀르메는 옥으로 셋 그테 같같이 하니 석요되(번노 下51)

ㄴ. 녀름에는 옥으로 석 그테 같구리 하니를 석오되(노언 下46)

18) 김종택(1992),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p.245.

‘녀름메’는 ‘여름(夏)’를 의미한다. <老諺>에서는 분철표기를 한 ‘녀름’의 형태를 보여준다. 녀름>여름의 과정을 거쳐 현대 국어로 자리 잡은 듯하다.

뉘름비 時節에 마초하야 녀름미 ㄷ외야(釋譜9:34)

긴 녀름 江村에 일마다 幽深하도다(杜解7:3)

한편 동음이의어로 ‘農事’ 또는 ‘農産物’을 가리키기도 했는데 이는 19세기 말 한자어로 교체되었다.¹⁹⁾

(2) 글워를: 글월

ㄱ. 글워를 늘 하야 쓰이로 즈르미 즉재 쓰라 이 글(번노 下15)

ㄴ. 글월을 늘로 하여 쓰이로 즐음이 임의셔 쓰라 이 글(노언 下15)

‘글월’은 ‘글, 책’ 따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 뜻을 세분화 하여 5가지로 나눌 수 있다.²⁰⁾

①글월, 글, 책

여러 글워른 밋은 빅예 ㄱ득하얏도다(杜解20:1)

가문 ㄱ르치느 글월의 닐어쇼되(翻小8:25)

②경전(經典), 전적(典籍)

經은 곧 能詮흔 글월 ㅅ르미라(楞解1:10)

③편지, 文書, 文案

義 잇고 겨지븐 두 번 가는 글월리 업스니(宣賜內訓2 上11)

④詩

글월 시 : 詩(訓蒙 上34)

⑤글자

글월 즈 : 字(訓蒙 上35)

19)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 박이정, p.181.

20) 남광우(2009), 「고어사전」, 교학사.

여기에서는 ③의 의미로 <老諺>에 와서 분철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글
밭>글왈>글월’의 변화과정을 거쳤다. 한편 <淸老>에 한자어 ‘文書’로 표기하고
있다.

ㄷ. 文書를 뉘게 쓰이리 즘 네 쓰라 글을(청어 下5-22)

(3) 독벼리: 독별

ㄱ. 므스거시 긴홀고 독벼리 내라 하야 외방의(번노 上41)

ㄴ. 므스거시 긴호료 독별이 내라 외방의(노언 上37)

‘독벼리’는 원문 偏’의 번역으로 ‘유달리’의 뜻이다. ‘독별이, 독별히’로도 쓰였
는데 <老諺>에서는 ‘독별이’로 쓰였다. <老諺>에 와서 분철표기 되었다.

내라 독별이 도흔 珊瑚를 츠디 못호라(朴解 下26)

위에서 살펴 본 (1)~(3)은 모두 분철표기와 관련되어 있다. 분철표기는 <老
諺>에서 더욱 확대되어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구별표기에도 크
게 확대된다.

(4) 닐우미: 닐움

ㄱ. 거시어니썩나 이러면 형님 닐우미 올타 내 슬릿방의(번노 上56)

ㄴ. 라 이러면 형의 닐움이 올타 내 슬릿방의(노언 上56)

‘닐우미’는 ‘읽다, 말하다’를 의미한다. <老諺>에 와서는 ‘니르-(云) + -움(명
사형)’의 형태구조로 언해되었다. 명사형 어미의 결합 없이 쓰이는 경우를 다른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벧 변의 네 일을 닐으디 아니호며(宣小3:12)

닐으건덴 므음이 알푼니 너희 맛당히 썩의 사길디니라(宣小5:19)

한편, <淸語>에서는 ‘말을 좃자’로 언해되어 그 형태를 달리한다.

ㄷ. 이러흐면 형의 말을 좃자 내 술릿집의(淸어 上4-7)

(5) 삐매: 삐

ㄱ. 두어사 대되 편안흐리라 이 일빅 량으란 혼 삐매(번노 下65)

ㄴ. 우에야 대되 편안흐리라 이 일 빅 냥으란 혼 삐에(노언 下65)

‘삐매’는 ‘사용하다(用), 쓰다’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ㅂ과 ㅅ의 습用竝書이다. 초성 위치에서의 합용 병서는 ‘ㅂ’을 가지는 계열(ㅃ, ㅆ, ㅍ, ㅍ 등)과 ‘ㅅ’을 가지는 계열(ㅆ, ㅅ 등)의 두 가지가 있는데 ㅂ, ㅅ의 합용병서는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완진(1976:95)은 老乞大諺解에서 ‘ㅂ’과 ‘ㅅ’계의 구별이 혼란되어 사실상 구별이 없어졌다고 했다. ‘ㅂ’과 ‘ㅅ’은 단순한 경음화의 구실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淸語>에 와서는 ‘ㅅ’계로 통일된 상태를 보여준다.

ㄷ. 두어야 죠흐리라 오냐 이 一百兩을 혼 쑤(淸어 下8-14)

그런데 여기에서의 ‘쑤’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 각자 병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언해자들이 ‘ㄱ, ㄷ, ㅃ’ 등의 용례를 모르는 시기이므로 합용 병서의 범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의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6) 나리: 날

ㄱ. 요스시 도로 가고자 하니 며춧 나리 도흔고(번노 下71)

ㄴ. 요스이 도로 가고져 하니 몇춘 날이 도흔고(노언 下71)

<飜老>에서의 ‘나리’가 <老諺>에서 분철표기의 형태를 취해 ‘날이’로 표기되었다. 여기에서 ‘날’은 한자어 ‘日’에 대응되는 것으로 주격조사 ‘-이’가 그 앞말에 붙어 쓰였다.

2) 重綴表記

(7) 기피: 김피

ㄱ. 二丈 기피음 허거니와 우리 뗏 우므른 다 돌호로(번노 上36)

ㄴ. 二丈 김피 잇거니와 우리 더기 우믈은 다 돌로(노언 上32)

어말 자음이 두 개 이상인 단어와 ‘ㅅ’말음을 지닌 명사들은 <飜老>에서부터 중철표기를 보여 준다. 한편 <老諺>에서 ‘김피’의 중철표기는 <淸老>로 와서는 ‘김희’로 나타난다.

ㄷ. 김희 두발이오 우리 저기 우믈은 다 돌로(청어 上3-1)

김완진(1976:101-16)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자립형태소에 대한 인식의 성립이며 의존 형태소로부터의 식별로 표기자의 문법의식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획하는 사실이라고 파악하였다.

3) 중성 ㅅ과 ㄷ의 교체

(8) 너므 굳다: 너모 굿다

ㄱ. 견조면 너므 굳다 이거시 십년을 디나도 히야디디(번노 上39)

ㄴ. 견조면 너모 굿다 이는 十年을 견디여도 몰허디디(노언 上35)

중성표기에서 주목되는 국어사적 사실들 중 하나는 중성에서의 ‘ㄷ’의 제외로 인한 7중성법이다. 7중성법의 성립은 ‘ㄷ’ 받침의 예외를 의미한다. 중성 ‘ㅅ’과 ‘ㄷ’의 표기는 중세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운론적 대립을 이루었기 때문에 8중

성의 단위로 각각 인정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초기부터 ‘ㅅ’과 ‘ㄷ’의 중화로 인한 변별적 기능의 상실이 시작되었다. 이는 곧 종성 ‘ㅅ’과 ‘ㄷ’의 혼기로 이어진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근대 국어로 넘어오면서 자음 어미 앞에서는 ‘ㅅ’과 ‘ㄷ’이 공존하고, 모음 어미 앞에서는 분철 표기가 전제될 경우 ‘ㄷ’종성이 ‘ㅅ’으로 표기되고 연철표기가 전제될 경우 어간 말음 ‘ㄷ’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飜老>에서는 종성 ‘ㅅ’과 ‘ㄷ’이 엄격히 구별되지만, <老諺>에서는 ‘ㄷ’받침을 ‘ㅅ’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외적인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면 ‘ㄷ’받침은 종성에서 쓰이지 않게 되고 7종성체계에 이르게 된다. 김완진은(1976:116) 이것은 ‘ㄷ’과 ‘ㅅ’의 중화의 결과로 생긴 표기법의 변화인데, 그 당시의 국어는 중화라는 면에서 현대국어적 질서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즉, <老諺>의 표기는 아직 현대 국어의 음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읽을 수 없다고 했다. <老諺>에서의 표기법의 근본은 체언과 용언을 식별하는데 있고, 그것은 자립 형태소에 대한 인식의 성립이며, 의존 형태소로부터의 식별이라고 했다. 따라서 표기자의 문법 의식의 발전으로 파악했다.

(9) 변지스다: 벗지우다

- ㄱ. 향야 여스 변 지스며 가히와 물 지서 미실 차 꼭눈(번노 下48)
- ㄴ. 향여 여으 벗 지우며 가히와 무리 지어 每日 차 꼭눈(노언 下44)

<飜老>와 <老諺>의 어휘 비교에 있어 계속해서 주목되는 사실인 7종성법은 <老諺>에서 원칙적으로 ‘ㄷ’받침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함으로써 그 특징이 계속해서 발견된다.

(10) 못아즈미: 못아즘마

- ㄱ. 딛지즘 잇거든 두서 님 가져오라 못 아즈미(번노 上25)
- ㄴ. 딛지즘 잇거든 여러 님 가져 오라 못 아즘야(노언 上23)

‘못아즈미’는 원문 ‘大嫂’의 번역으로 원 뜻은 ‘큰 형수’이다. 여기서는 ‘맡아주머니, 큰 아즘마’의 뜻으로 쓰였다. 여관에서 주인이 여자 종업원을 부르는 호칭

으로 보인다. 이 역시 7중성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1) 뽏: 뽏

ㄱ. 네 널오미 내 뽏과 곧다 다른 게만 도흐니(번노 上11)

ㄴ. 네 널오미 맞치 내 뽏과 갓다 다만 게만도흐니(노언 上11)

‘뽏’은 중세 국어에서 ‘생각, 意味, 趣旨, 意志, 意慾, 所願, 感情, 心情, 情趣, 事由, 意義’ 등의 의미로 쓰였던 다의어이다. 이와 대응되는 한자는 ‘思, 心, 意, 義, 情, 旨, 志, 趣’ 등 여러 가지이다. 17세기에 와서 ‘뽏’은 ‘뽏’과 함께 ‘뽏’으로 표기된 것도 있었는데 이는 이 시기에 받침이 ‘ㄷ’에서 ‘ㅅ’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老諺>에서도 ‘뽏’으로 표기되었다. 한편 18세기에는 이 말의 어형이 ‘뽏, 뽏, 뽏, 뽏, 뽏’ 등 다양하게 표기된다. 즉, 어형 ‘뽏’의 초성 ‘ㅍ’이 ‘ㅅ’으로 쓰인 것이 많이 나타나고 중성에서 ‘ㄷ’이었던 것이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경우 ‘ㅅ’으로 많이 표현되며, 다음에 모음이 이어지면 ‘ㅈ’으로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18세기에 ‘뽏’의 중성이 ‘ㄷ’에서 ‘ㅈ’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7중성법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뽏’으로 표기하였다.²¹⁾

4)자음동화

(12) 며춧 나리: 몇춘 날이

ㄱ. 요스시 도로 가고자 하니 며춧 나리 도흐고(번노 下71)

ㄴ. 요스이 도로 가고져 하니 몇춘 날이 도흐고(노언 下71)

‘며춧나리’는 ‘며출(幾) + -ㄱ(사이시옷) + 날(日) + -이(주격)’의 형태구성이 다. 사이 ㅅ 앞에서 ‘며출’의 ‘ㄹ’이 탈락되었다. 이 현상은 이 시대에 매우 왕성하게 일어났다. ‘며춧’은 ‘며칠’을 뜻하는 명사이다.

몇출을 머므로뇨(朴解 下41)

21)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p.288.

몇출 동안의 엇지 능히 니르럿느냐(華解 上1)

<淸語>에서는 ‘어너 날이’로 언해되었다.

ㄷ. 요스이 도라 가고져 하니 어너 날이 죠호뇨(청어 下8-21)

(13) 굴잇씩: 굴릭씩

ㄱ. 우리 다숫 사르릭 서긔 굴잇씩 밍글라(번노 上20)

ㄴ. 우리 다숫 사름에 서긔 굴릭씩 밍글라(노언 上20)

‘굴잇’은 ‘가루의’라는 뜻으로 <老諺>에서 ‘굴릭’로 표기되었다. ‘가루’의 형태는 ‘굴’이고 ‘굴잇씩, 굴릭씩’에 대응하는 현대어의 어형은 ‘가래떡’이다. 이는 ‘ㄹ’음을 올려쓰느냐 내려쓰느냐의 문제 즉, ‘ㄹ+ㅇ>ㄹ+ㄹ’의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비슷한 예로 ‘술이여(飜老) : 술리야(老諺)’가 있다. <老諺>에서 보면 ‘ㄹ’은 마음대로 올려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문헌에서 역시 뚜렷한 음운규칙이 보이지 않는다.

미리 밭을 씨허 굴를 밍드라 쫄을 버므려 두어 섬을 햏야 비얍의 구무 어귀에 쑈다 두엇더니(太平1:11)

(14) 보숯히다: 보살피다

ㄱ. 덕 잇게 햏라 수이 보숯필 거시라 드리 어두으니(번노 上58)

ㄴ. 덕 잇게 햏라 보살피기 쉽게 햏라 돌이 어두오니(노언 上58)

‘보숯히다’는 ‘보살피다’의 뜻이다. <老諺>에서 ‘보살피기’로 표기되던 것이 <淸語>에 가서는 다시 ‘보숯히기’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보숯히다’와 ‘보살피다’가 혼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숯필’은 모음간 3자음자 연속으로 이 시기의 표기법의 특수 현상에 의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ㄹ’과 ‘ㅇ’만이 음운상으로 존재한다. ‘보숯필’에서의 병서는 본질적으로 유기음 표기의 문제이지 병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ㄹ’을 제일요

소로 하는 합용 병서 즉, 자음 연속은 조선조 초에 있어서 語末이나 다른 후행 자음 앞에서도 그 표기가 정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老諺>에서는 <飜老>에서의 ‘얹’이 ‘압’으로 표기되는 예가 보여 이미 그러한 시대가 지나갔음을 보여준다.

술윗 얹 괴와논 나모(번노 下36)

술윗 압 괴오논 나모(노언 下32)

2. 어휘 교체

어휘 교체형은 중세국어에서 쓰이던 어휘가 근대국어에서 형태를 아예 다르게 하여 다른 어휘로 교체되어 쓰이던 것을 말한다.

(15) 채다: 씨다

ㄱ. 𑖇술희논 𑖇리 채여 𑖇회 거두디 못하니 이런 전츠로 우리도(번노 上53)

ㄴ. 𑖇술희 𑖇 씨여 田禾를 거두니 못하니 이런 전츠로 우리도(노언 上47)

‘채여’는 동사 ‘잠기다’의 의미이다. <老諺>에서 ‘씨여’로 언해되었다.

(16) 받다: 썩다

ㄱ. 바돌디면 𑖇량을 바도련마론 고든 𑖇슨 𑖇량이니(번노 下29)

ㄴ. 만일 썩오면 𑖇량을 썩오려니와 고디식흔 𑖇슨 𑖇량이니(노언 下27)

‘바돌디면’이 <老諺>에 와서 ‘썩오면’으로 언해되었다.

(17) 뵤밥: 뵤밥

ㄱ. 𑖇디 𑖇오 𑖇길고 𑖇어든 이맛감 뵤바비(번노 上41)

ㄴ. 𑖇디 𑖇심이 나 𑖇믈ᄃᄃ 𑖇건대 이만 뵤밥이(노언 上37)

‘뵤 밥’은 ‘맨 밥’을 의미한다. <老諺>으로 오면서 ‘뵤바비’가 ‘뵤 밥이’로 표기

되었다.

<老諺>의 표기와 <飜老>의 표기의 비교에 있어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명사 어간을 고정적으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그 어간이 자음으로 끝난 것일 때, 혹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격형태 같은 것을 만나도 그 자음을 다음 음절에 쓰지 않는다. 이는 ‘밥 + 이’가 ‘바비’가 아닌 ‘밥이’와 같이 쓰는 경우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18) 점글다: 늦다

- ㄱ. 점글어든 잣 안해 드리 가져 예서 하덤에 가매(번노 上59)
- ㄴ. 늦게야 京城의 가져 예서 夏店 가기(노언 上59)

‘점그러’는 ‘점글-(暮) + -어(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저물어서, 날이 어두워서’의 뜻이다. <老諺>에 와서 ‘늦게야’로 언해되었다.

(19) 호다: 들다

- ㄱ. 더 흰 창이 다 두 층 조흔 창에 호와 잇는 시른 밀(번노 下53)
- ㄴ. 터 흰 창이 다 두 층 조흔 창에 드라 잇는 밀(노언 下48)

‘호와잇는’은 ‘호-(縫) + -아(연결어미) + 잇-(在) + -고(연결어미)’의 형태구성으로 ‘ 꿰매다, 박다’의 의미이다. <老諺>에 와서는 ‘드라 잇는’으로 언해되었다.

(20) 이받다: 치다

- ㄱ. 제 겨집과 아히 이받느니 혼나래 나죄 도의도록(번노 下55)
- ㄴ. 제 겨집과 즈식을 치니 혼나래 나조희 다드라(노언 下49)

‘이받느니’는 ‘주다’ 정도의 의미인데 <老諺>에 와서 그 어형을 아예 달리하여 ‘치니’로 언해되고 있다. ‘이받다’는 중세국어에서 다양한 의미로 활발하게 쓰인 동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은 쓰이지 않고 대신 ‘이바지하다’가 쓰이는데, 이 동사는 옛날부터 써온 ‘이바디하다’에서 온 말이다. 중세국어에서 ‘이받다’의 의

미는 ‘떡이다’, ‘奉養하다’, ‘待接하다’, ‘잔치하다’, ‘祭祀지내다’의 뜻으로 쓰였다.²²⁾

① 떡이다

目連이 슬허 바리에 밥 다마 어미를 가 이바드니(月釋 21:124)

아스 이바도물 날븐 일 업더니(三綱 孝24)

② 奉養하다

눈 먼 어시를 이받노라(月釋 2:13)

孟氏는 도흔 兄弟니 어버실 이바도되(杜初 21:33)

③ 待接하다

지비 가난하야 이바들 거시 업더니(杜初 8:55)

아히 불러 비와 대초와를 ㄱ초 이받는다(杜初 22:3)

그 안해 밥을 이바도되(宣小 4:34)

④ 잔치하다

아바님 이받즈 제 어마님 그리신 늡므를(龍歌 91)

⑤ 祭祀지내다

九農이 德業을 일우니 온 가짓 이바도매 비치 나도다(杜初 11:9)

도흔 차반 밍ㄱ라 버려 百神 이바도므란 東녝 檀 우희 었고(月釋 2:73)

獻壽하논 술로 城隍을 이바드리로다(杜初 23:25)

‘이받다’는 17세기에도 많이 쓰였는데 그 어형이 ‘이받다’로도 일부에서 나타난다. 의미는 중세 국어와 동일하게 ‘떡이다’, ‘奉養하다’, ‘待接하다’, ‘祭祀지내다’의 뜻으로 쓰였다. 이는 18세기에는 사용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중세 국어 때부터 써오는 ‘이바디하다’를 많이 쓰게 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받다’는 18세기까지만 쓰이고 소멸된 것으로 생각된다.²³⁾ 한편 ‘치니’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는 단어로 ‘짐승을 기른다’의 의미로만 사용된다.

(21) 칙칙하다: 비다

ㄱ. 굴근 춤빳 일빅 낫 칙칙훈 춤 빳 일빅 낫 셔피로 훈(변노 下68)

22)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p.78.

23)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p.81.

ㄴ. 굴근 춤 빗 일빅 낫 빈 춤 빗 일빅 낫 서피로 혼(노언 下61)

‘칙칙한’은 ‘빹빹한, 조밀한’의 뜻이다. 의성의태어가 풍부하다는 점은 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국어에서 의성의태어가 발달한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자음과 모음의 대립에 의해 어감의 차이를 가지는 말이 풍부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이미 후기 중세 국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중세 국어 문헌에서는 의성의태어가 풍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현대 국어에서 의성의태어가 풍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극히 적은 양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의성의태어가 발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은 아니었다고 추측된다. 그 예가 적기는 하지만 현대 국어의 의성의태어의 특징이 ‘직직~칙칙~칙칙’에서처럼 그대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다만 문헌의 성격이 의성의태어를 보여주기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나 한다. 중국어 학습서였던 「老乞大」의 언해 <翻老>에서 ‘칙칙한’으로 언해되었던 것이 <老諺>에 가서 ‘빈’으로 언해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ㄴ죽고 조코 칙칙히시며(月釋2:41)

넛相이 마스니 ㄴ즈기 ㅍㅎ시고 조ㅎ시고 칙칙히샤(法華7:148)

문헌의 성격을 반영이라도 한 듯, <老諺>에서는 ‘빈’으로 언해되었고 <清語>에서는 ‘ㄴ느’으로 언해되었다.

ㄷ. 굽은 춤 빗 ㄴ느 춤 빗 各各 一百(청어 下8-18)

그러나 <翻老>에서의 ‘칙칙’은 큰 의미를 보여준다. 현대 국어에는 ‘절거덕, 찢거덕, 철커덕, 잘가닥, 찢가닥, 찰가닥’처럼 자음이나 모음만 바뀌면서 의미가 미세하게 차이를 보이는 단어군이 존재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자음이 바뀌는 경우, 현대 국어에서와 같이 체계적으로 발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빹빹한 의미를 나타내는 ‘직직~칙칙~칙칙’은 그에 대응되는 좋은 예이다.

(22) 너룻씨다: 헤어리디다

ㄱ. 밭와 그룻 벼들 사자 가마 노고 너룻썸 가·마(번노 下33)

ㄴ. 밭과 그룻 벼들 사자 가마 노고 헤너러딘 가마(노언 下29)

‘너룻썸 가마’는 ‘벌어진 술’을 의미한다. ‘너룻썸’의 기본형은 ‘너룻씨다’로 동사 ‘헤벌어지다’를 의미한다. <老諺>에 와서 ‘헤너러딘’으로 표기되었다.

(23) 딕골: 골치

ㄱ. 이 이바디 각산햐야다 내 저기 딕고리 앓프며 머리도(번노 下39)

ㄴ. 이 이바디 흐터디거다 내 저기 골치 알프고 머리도(노언 下35)

‘딕고리’는 ‘머리’를 말한다. <老諺>에 와서 ‘골치’로 언해되었다.

(24) 궂티다: 절이다

ㄱ. 녹새 잇거든 저기 가져오라 이러면 궂 틈 외(번노 上63)

ㄴ. 녹새 잇거든 저기 가져 오라 이러면 저린 외(노언 上57)

(25) 노호: 줄드레

ㄱ. 기를 자새 잇느녀 업스녀 열가온 우므레 노호로 물(번노 上31)

ㄴ. 기를 즈애 잇느냐 업스냐 엇트나엇트 우물이니 그저 줄드레로 물을
(노언 上28)

‘노호로’는 중국용어 ‘노’의 부사격이다. 그런데 <老諺>에 와서는 ‘줄드레로’ 언해되어 그 뜻이 ‘줄두레박’을 의미한다.

스므 비를 노호로 얹어미고 (三譯4:14)

흔 오리 ㄱ는 노홀 미얏느니(老諺上33) (중첩용어 ‘노’의 목적격)

그러나 ‘줄드레’는 물을 길는 ‘박’의 의미로 쓰였다.

엇든 우물이니 줄드리로 물을 깃느니(蒙老2:17)

(26) 두다: 머물다

- ㄱ. 아닌 듯하다 하나 두워 방 보라 하고 다르니 물(번노 上33)
- ㄴ. 아닌 듯하다 하나 머무리 房 보라 하고 다르니란 물(노언 上30)

<重老>²⁴⁾에서는 사람의 경우는 ‘머물-’, 짐을 내리는 경우에는 ‘브리오-’를 쓰는 경향이 나타난다. <翻老>에서는 이의 구분이 없이 그냥 ‘두워’로 언해되던 것이 <老諺>에 와서는 ‘머무리’로 언해된다.

(27) 간슈: 슈습

- ㄱ. 와 그릇 베틀 간슈하고 노연들히 자거든 혼 동모(번노 下46)
- ㄴ. 과 그릇 썩을 슈습하고 宮人들히 자거든 혼 벗으로(노언 下41)

‘간슈하고’는 ‘간직하고, 간수하고’의 뜻이다. <老諺>에서 ‘슈습하고’로 언해되었다. 이 어휘의 용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간슈호(類合下 28)

- 看守勢는 곳 보고 직희여 티는 거시라(武藝圖 18)
- 벼르미 디어든 숲베를 收拾하고 (重杜解 10:32)
- 네 드레와 줄을 收拾하야 내여오고져(老解上 28)

(28) 므던하다: 걸리찌다

- ㄱ. 잇그러 가라 하자 므던하니 이 덤에 다 문 다드면(번노 上33)
- ㄴ. 잇그러 가자 므스 일 걸리찌리오 이 店에 다 門 다드면(노언 上30)

‘므던하다’는 ‘괜찮다, 좋다’의 의미이다. <老諺>에 와서는 ‘걸리찌리오’로 교체되었다.

24) 「重刊老乞大諺解」를 이룸.

머거도 므던헝니라(飜朴 上56)

비록 毒흔 藥이라도 므던헝니(南明 上54)

<老諺>에서의 ‘걸리씨리오’는 초성 합용병서 이른바 語頭子音群의 현상으로 보인다. 어두에서 둘 이상의 자음이 겹쳐 난다고 하여 이를 흔히 어두자음군이라 하는데, 합용의 방식에 따라 편의상 ‘ㄱ’계, ‘ㄴ’계, ‘ㅁ’계로 나눈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ㄱ계

ㄱ : 꿈(夢), 꼬리(尾), 꾸뒸다(叱)

ㄲ : 짜(地), 짝(亦)

ㄴ : 뼈(骨), 뽕(桑)

ㄷ : 쑤다(織)

② ㄴ계

ㄴ : 무다(貸)

ㄷ : 뽕(志), 뽕로(別)

ㄹ : 쌀(米), 뽕(種), 뽕다(用)

ㅁ : 뽕(隻), 뽕(方)

ㅂ : 뽕다(彈), 뽕다(躍)

③ ㅁ계

ㅁ : 뽕(時), 뽕다(貫)

ㅂ : 뽕(時), 뽕리다(破)

‘걸리씨리오’는 ‘ㄱ’계 합용병서로 일반적으로 된소리를 표기하는 방법이었다. 더욱이 17세기 이후에 와서는 된소리 표기가 ‘ㄱ’계로 단일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29) 뽕터: 뽕동산

ㄱ. 짜해 뽕간의 가미 어렵다 우리 그저 이 뽕터해(변노 上37)

ㄴ. 짜히 뽕간의 가기 어려오니 우리 그저 뽕동산의(노언 上33)

<飜老>의 ‘뒤틀터’가 ‘뒤틀동산’으로 언해됨으로써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뒤틀동산’의 ‘동산’은 ‘山’과는 다른 의미의 공간성을 지닌다.

(30) 녀느: 다르다

ㄱ. 들윗 邊東으로서 간 나그내들히 년딧 브리디 아녀(번노 上11)

ㄴ. 들윗 邊東으로서 가는 나그내들히 다른딧 브리오디 아니호고(노언 上10)

‘년딧’은 ‘여느 데, 판 데, 판 곳’을 말한다. <飜老>에서 ‘다른 곳’의 의미로 ‘년딧’로 언해되던 것이 <老諺>으로 와서는 ‘다르다’의 기본형으로 언해된 듯하다.

‘다르다’는 ‘다르다’의 의미이다. 이는 현대어의 ‘다르다’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다르다>다르다’의 어휘 변천 과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내 이에 이셔 년딧 읍디 아니호리니(釋譜11:29)

이제야 도라오나니 년딧 므음 마로리(古時調. 李滉. 當時예. 靑丘)

또한 ‘다른 딧’의 ‘딧’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당수가 <重刊老乞大諺解>에 가서 ‘곳’으로 바뀌었다.

(31) 좃다: 붙다

ㄱ. 고기를 사되 ㄹ장 솔지니란 말오 녀발치 조즌 고기를(번노 上21)

ㄴ. 고기를 사되 ㄹ장 솔지니란 말고 녀팔지 브튼 고기를(노언 上19)

‘조즌’은 ‘조출흔’으로도 쓰며 ‘깨끗한’의 뜻이다. <老諺>에 와서는 ‘브튼’으로 쓰였다.

(32) 무적: 덩이

ㄱ. 내여 즉제 게셔 흔 무적 큰 돌 가져다가 그사르미(번노 上28)

ㄴ. 내여 즉제 게셔 흔 덩이 큰 돌흔 가져다가 그 사람의(노언 上25)

‘무적’은 ‘무더기, 덩이’를 뜻한다. ‘무덕이, 무작, 무저비’로 표기되었으며, <老諺>에서는 ‘덩이’로 언해되었다.

모물 즘은 무저긔 싸하라 피와 고기왜 너르 듣더니(月釋23:78)

가히는 사르미 흙 무저그로 터든 흙 무저글 브너홀오(金三2:21)

(33) 돛: 샷

ㄱ. 지즙과 돛 가져다가 나그내네 주워 솔에 하라(번노 上25)

ㄴ. 딥지즙과 샷글 가져다가 나그내들 주어 쥘게 하라(노언 上23)

‘돛’은 ‘席子’의 번역으로 ‘돛자리’를 말한다. <老諺>에서 ‘샷자리’를 의미하는 ‘샷글’로 쓰였다.

직는 돛글 둔거이 덥게 하노라(法華:2:242)

돛긔 므를 衆 이실 뜰 미리 아르시며(法華1:168)

(34) 먹다: 엇다

ㄱ. 밤 플 못 머그면 슬지디 아니하고 사르미 뽀 천곳(번노 上32)

ㄴ. 밤 여믈을 엇디 못흐면 슬지디 못흐고 사름이 뽀 財物을(노언 上32)

<翻老>에서의 ‘믈 먹다’가 <老諺>에서 ‘엇지 못흐다’로 언해되었다. 이는 부정사 ‘못’과 함께 쓰였다. 중세국어에서 부정사 ‘아니’, ‘못’은 용언 앞에 오는 형식이 지배적임에 대해, 후대로 오면서 부정사가 용언의 뒤에 오는 형식이 우세해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翻老>에서도 후자의 형식이 우세하며, <翻老>에서 볼 수 있는 부정부사 ‘아니’, ‘못’이 용언 앞에 오는 형식은 <老諺>에서 ‘-지 아니흐-’, ‘-지 못흐-’의 형식으로 바뀐다. 이러한 경향은 <清語>에 이르러서는 더 강한 세력을 형성하여 대부분이 부정사 ‘아니’와 ‘못’이 용언의 뒤에 오는 형식으로 나타난다.²⁵⁾

25) 박희룡(1988), 「老乞大의 諺解의 翻譯에 대한 比較研究」, <國語研究>82, 서울大學院 國語研究會.

한편 아래 예문과 같이 ‘늦다, 더디다’와 같은 동사가 부정사 ‘아니’와 함께 쓰일 때, 부정사가 용언의 뒤에 오지 않고 <翻老>와 <老諺> 모두에서 용언의 앞에 쓰여 예외적임을 보여준다.

- ㄱ. 디쳐 햏야도 쏘 늦디 아니 햏리라 네 널오미 올타(번노 上70)
- ㄴ. 디쳐 햏야도 쏘 더디디 아니 햏리라 네 널욘이 올타(노언 上63)

(35) 털: 소음

- ㄱ. 양의 이런 큰 갑슬 바도려커시니 도햏 털 긴 양으란(번노 下22)
- ㄴ. 양에 이런 큰 갑슬 바드려햏면 도햏 소음 더 양은(노언 下20)

‘털’이 ‘소음’으로 언해되면서 그 형태를 아예 다르게 하고 있다.

(36) 벗딤: 잇짚

- ㄱ. 쫏디피사 도햏니 햏다가 벗딤피면 이 즘승들히 먹디(번노 上18)
- ㄴ. 이 쫏딤피 도햏니 햏다가 닛딤피면 이 즘승들이 먹디(노언 上16)

‘벗딤’과 ‘닛딤’은 모두 ‘벗짚’을 말한다. <翻老>에서 ‘벗딤’으로 언해되던 것이 <老諺>에 와서 ‘닛딤’으로 표기되었다. 이는 ‘니스집>잇짚’의 변천과정을 보여준다.

(37) 요제: 요스이

- ㄱ. 너를 머물워 재리오 네 모르느고나 요제 예 햏(번노 上50)
- ㄴ. 너를 머물워 재리오 네 모르느고나 요스 이 햏(노언 上45)

‘요제예’는 ‘최근, 요즘’의 뜻으로 원문 ‘新近’을 언해한 것이다. <老諺>에 와서 ‘요스이’로 표기되었다.

(38) 갈궁쇠: 갈구리

- ㄱ. 갈궁쇠 다 잇다 쏘 글근 무면 일빅 필와 금으로(번노 下69)

ㄴ. 갈구리 다 잇다 쫌 굴근 목면 일빅 필과 금으로(노언 下69)

‘갈궁쇠’는 ‘갈고랑쇠, 갈고랑이’를 뜻한다. <老諺>에서 ‘갈구리’로 언해되었다.

(39) 당상: 상상

ㄱ. 상넷 말·소매 닐오되 당상 도죽 막스물 막고 늑미(번노 上34)

ㄴ. 常言에 닐오되 상상의 도적 막음을 막고 늑의(노언 上30)

‘당상’은 ‘장상(長常)’, ‘늘’의 뜻이다. <老諺>에서 ‘상상’으로 언해되었다.

日月이 당상 비취듯 헛니(金剛61)

헛 ㅅ슬 헛 당상 비 ㅅ로외더니(初杜解23:7)

(40) 헛미: 헛가지

ㄱ. 딛과 콩이 헛미 아니니 콩딛 논 딘 서너 돈 은을 쁘고(번노 上12)

ㄴ. 딛과 콩이 헛가지 아니라 콩딛 귀헛 곳은 서너 돈 은을 쁘고(노언 上12)

‘헛미’는 원문 ‘不等’의 번역으로 ‘한 가지’란 뜻이다. <老諺>에서는 ‘헛 가지’ 그대로 쓰였다.

몸이 헛나힐씨 빅블음도 헛가지러니(月印上49)

우리도 公木을 굴히여 자브면 헛가지 읍도쇠(新語4:5)

헛가지로 다 뭐다 호미 세 가지니(月釋2:14)

(41) 데: 더기

ㄱ. 우리 그저 데 드러 자고 가져 데 가(번노 上10)

ㄴ. 우리 그저 더기 드러 자고 가자 더기 가(노언 上10)

‘데’는 현대어의 ‘저기’에 해당하는 말이다. 당시는 ‘데’가 中稱의 의미로 쓰여 ‘거기’로 쓰였을 것이다. <老諺>에 와서 ‘더기’로 언해되었다.

(42) 해자하다: 슈페허여이다

ㄱ. 허물 마르쇼셔 小人들허 예 와 해자허고(번노 上43)

ㄴ. 허물 말라 小人들이 예 와 슈페허여이다(노언 上43)

‘해자허고’는 ‘폐를 끼쳤다, 소비를 시켰다’의 의미이다. <老諺>에 와서는 ‘슈페허여이다’로 언해되었다. ‘슈페허여이다’에서 ‘-이-’는 공손의 의미를 ‘-다’는 종결의 의미를 지녀 ‘폐를 끼치고 성가시게 하였습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43) 권즈: 탕권

ㄱ. 권즈 가져 지비 가라 너 슈고허연더 허물 말라(번노 上46)

ㄴ. 탕권 가져 집의 가라 너 슈고허여다 허물 말라(노언 上46)

‘권즈’는 ‘罐子’의 차용어로 보인다. ‘罐’은 물이나 국 등을 퍼 담는 관 모양의 그릇을 말한다. 그런데 <老諺>으로 오면 ‘권즈’는 모두 ‘탕권’으로 언해되어 ‘권즈’는 더 이상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4) 양지: 모양

ㄱ. 네 이 여러 번들허 양지 쏘 漢人도 아니오 쏘(번노 上50)

ㄴ. 네 이 여러 벳들의 모양이 쏘 한사람도 아니오 쏘(노언 上50)

‘양지’는 ‘모습, 모양’을 뜻하는 말이다. <老諺>에 와서는 현대 국어와 일치하는 ‘모양’으로 언해되었다. 이는 중세 국어에서 ‘모양, 모습, 形勢, 標識’ 등의 다양한 뜻을 나타내는 다의어로 쓰였다. 이 말은 한자어 ‘樣姿’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①모양

늦 양즈는 늘근 한아비 드외엿도다(杜初 21:31)

게으른 양지 업스며(飜小 10:23)

양궈 즈:姿, 양궈 툃:態(訓蒙 下26)

②모습

簫簫는 서늘흔 양지라(金三 1:20)

③形勢

그 양지 들히 곶와 크디 못흐리니(杜初 6:38)

글흐는 집과 부디 양즈를 그디 아철지 아니홀시(杜初 25:49)

산이 양지 티와든 듯흐고(眞言 9)

④標識

玉 잇는 府에 양지 노피 비취엿는듯고(杜初 23:8)

이 말은 17세기에는 중성에서 ‘ㅇ’가 ‘ㅇ’으로 표기되어 ‘양즈’로 나타났고, 의미는 ‘모양, 形勢, 標識’을 나타냈다. 이 말이 18세기에 간행된 「靑丘永言」에 실린 시조에서 쓰인 일이 있으나 정확한 사용 시기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양지’는 17세기까지 쓰이고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⁶⁾

(45) 야즈: 즘

ㄱ. 야즈의 마를 조차 흐져 이 심을 드라 하니 다문 일빅(번노 下58)

ㄴ. 즈름의 말대로 흐차 이 심을 드니 다만 일빅(노언 下58)

‘야즈’는 ‘아자(牙子), 중개인, 거간꾼’을 말하는 것으로 <老諺>으로 와서는 ‘즈름’으로 언해되었다.

(46) 솔웃: 송고스

ㄱ. 터 잇고 솔오즌 ㄱ를오 노흔 굴그니 흐와 잇는 양이(번노 下53)

ㄴ. 터 잇고 송고스 ㄱ를고 노흔 굴그니 드라 잇는 양이(노언 下48)

‘솔오즌’은 ‘솔웃(錐) + -은’의 형태구성으로 ‘송곳은’을 의미한다.

(47) 고든: 고디식흐다

ㄱ. 바돌디면 닷량을 바도런마른 고든 갑슨 녀량이니(번노 下29)

ㄴ. 만일 췌오면 닷냥을 췌오려니와 고디식흐 갑슨 녀량이니(노언 下27)

26) 김태곤(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p. 71.

김완진(1976)은 <老諺>에서 상당한 범주에 걸쳐 민간어원설에 의한 어사 형태의 언해가 행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 어원(folk etymology)이란 낱말의 어원을 밝힘에 있어서 언어학적 방법이나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만 음이 비슷하거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말 따위와 결부시켜 해석하는 어원설로, 민속 어원 혹은 민중 어원이라고도 한다.

가령 ‘황소’(牡牛)는 중세국어 ‘한쇼’(大牛)가 변천한 어휘임에도 이를 모피색에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다. ‘행주치마’와 같은 경우도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 행주대첩에서 유래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행주치마는 행주대첩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訓蒙字會」(1527)에서 쓰였다.

따라서 이는 그 어사가 실제로 걸어온 변천 그 자체와 꼭 일치할 수는 없는 것을 말한다. 즉, 민간어원설은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고디식혼’도 민간어원설에 작용한 표현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8) 흉즈: 가슴

- ㄱ. 뒷다리 흉즈 쯤 엇디 혼뒷다리 업스노(변노 下39)
- ㄴ. 뒷다리 가슴 쯤 엇디 혼 뒷다리 업스노(노언 下39)

현대 국어 어휘 ‘가슴’이 <翻老>에서는 ‘흉즈’로 언해되던 것이 <老諺>에 와서는 ‘가슴’으로 언해되었다. 이는 15세기에 ‘가슴’으로 쓰였고 17세기에도 ‘가슴’으로 쓰였지만 18세기에 와서는 16세기 문헌인 「恩重經」에서 ‘가슴’으로 표기되었던 것이 「恩重經」(1741) 南高寺本에서 ‘△’이 사라진 형태 ‘가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표기는 실제 발음이 아니고 ‘△’이 사라지면서 행한 의식적인 표기일 것이다.

(49) 앓가샤: 𪛗

- ㄱ. 小人은 나히 설혼 다숫설 小人은 앓가샤 설혼 두 설(변노 上64)
- ㄴ. 小人은 나히 설혼 다숫시라 小人은 𪛗 三十二歲라(노언 上57)

‘앗가샤’는 ‘앗가(이제, 지금) + 샤(강세첨사)의 형태 구조로서 현대어에서는 ‘이제야’의 의미이다. ‘앗가>아까’가 ‘전에’라는 의미로 바뀐 것은 근대 국어 이후의 일이다. 한편 <老諺>에서는 ‘겨우’으로 풀이하여 그 의미 또한 변하였다. ‘어찌 겨우’의 의미이다.

(50) 흐마: 이미

ㄱ. 향흐야 가노라 네 흐마 北京 향흐야 가거니 나는 高麗人(번노 上7)

ㄴ. 향흐야 가노라 네 이미 北京 향흐야 갈작시면 나는 高麗人(노언 上7)

‘흐마’는 부사로서 ‘이미, 벌써’의 뜻을 가진다. 다른 문헌에서의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西幸이 흐마 오라샤 角端이 말흐야닐 (龍歌 42章)

欲火를 흐마 썬샤 (月印 上37)

흐마 아호빌씩 出家흐여 聖人스 道理 비화샤 흐리니 (釋譜6:3)

<飜老>의 ‘흐마’는 <老諺>에 와서는 ‘이미’로 언해되는데 ‘이미’ 역시 ‘이미’라는 부사어로 쓰였음을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아비 디신흐여 죽기를 원흐니 이미 명흐샤 허흐여시나 (五倫1:39)

범이 이미 다 먹고 비 불러 누엇거닐 (五倫1:60)

그런데 ‘흐마’와 ‘이미’는 어느 한 쪽에서만 쓰인 단어가 아니다. 이는 <飜老>와 <老諺>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다만 <飜老>에서 ‘흐마’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老諺>에서 ‘흐마’를 쓰고 있는 경우가 극히 적을 뿐, ‘흐마’를 모두 ‘이미’로 언해한 것이 아니라 ‘흐마’와 ‘이미’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흐마’는 본래 ‘既’를 의미하는 동시에 가까운 미래의 개연성이 높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부사로 쓰였던 것이, <老諺>에 와서는 전자의 의미

는 ‘이미’에게 독점 당하고 후자의 의미 즉, 가까운 미래의 개연성이 높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만 쓰인 것으로 보인다.

부사 ‘흐마’는 중세국어에서 ‘이미, 벌써’와 이 뜻의 대조인 ‘장차’의 뜻으로 활발히 쓰인 어휘였는데, 18세기에는 ‘이미, 벌써’의 뜻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고 ‘장차’의 뜻으로 쓰인 것만 다음과 같이 발견된다.

흐마 든녀 오을 써시니(隣語 1:14)

큰 일을 흐마 그릇홀랏다 흐고(三譯 3:17)

결과적으로 ‘흐마’는 ‘흐마(이미, 벌써, 장차)(중세) > 흐마(장차)(18세기)(이후 소멸)’의 변천 과정을 보인다.

(51) 접다: 적다

ㄱ. 잇던가 다 편안흐더니 네 그 저믄 쓰리 되야기 내여(번노 下4)

ㄴ. 잇던가 다 安樂흐더라 네 그 저근 쫘이 되야기 닛더니(노언 下4)

‘저믄’은 ‘젊은’ 즉, ‘젊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접다’의 관형사형이다.

마치 열다스신 저믄 겨지비 허리 곧도다(杜解10:9)

모든 저믄 王을 ㄹ치시며(宣腸內訓2 上57)

한편, 중세국어의 ‘접다’는 ‘少’의 의미 외에 ‘幼(어리다)’의 의미로도 쓰였다.

사르미 나히 흐마 저며 아비 브리고 逃亡흐야(法華2:182)

이 말은 17세기에도 ‘어리다’, ‘젊다’와 같은 의미로 쓰였으나, 서술어 ‘접다’가 나타내는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무에도 적용하여 썼음을 다음의 용례에서 알 수 있다.²⁷⁾

27)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 박이정, p.258.

① 幼(어리다)

점어서 효경과 널너던을 날거(續三 烈7)(重刊本)

느릅 겹질을 늘근 남기나 저른 남기나 헤디 말고(救菴7)

② 少(젊다)

나도 점닷다(朴諺 下41)

아버이 점어서 홀업이 된 줄을 어엿비 너겨(續三 烈10)(重刊本)

(52) 스랑: 싱각

ㄱ. 어즐흐고 음식 스랄 아니흐오니라 내 이 약똥에(번노 下40)

ㄴ. 어즐흐고 음식 싱각 아니 흐느리라 내 이 약똥에(노연 下36)

‘스랑흐다’는 유의어 소멸과 의미의 축소를 모두 겪은 단어이다.

중세국어에서 ‘스랑흐다’는 ‘思’의 의미를 主意로 하고, ‘愛’의 의미를 副意로 가진 다의어였다. 즉, 개념상 ‘思’와 ‘愛’의 의미를 부의로 가진 다의어이다. ‘思’와 ‘愛’의 두 의미 사이에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양자를 어형만이 동일한 동음이 의어로 처리할 수는 없다. 이들은 상호 교호 관계에 있다. 사랑하는 것은 생각이 수반되고 대상에 따라서는 생각하는 것이 곧 사랑의 본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에서도 ‘생각하다’의 의미 속에 ‘사랑하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에 대해 임홍빈(1993)은 ‘생각하다’의 의미를 어사 환경에 따라

① 사고하다

② 그리워하다, 사랑하다, 동경하다, 사모하다, 흠모하다

③ 궁리하다, 사유하다, 추리하다, 추측하다, 추량하다, 사색하다, 고찰하다, 고려하다, 성찰하다, 상량하다

④ 판단하다, 믿다, 느끼다

⑤ 마음먹다, 결심하다, 걱정하다, 예정하다

⑥ 살피다, 헤아리다, 고려하다

등으로 기술해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각하다’와 ‘사랑하다’와의 유연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어휘사적으로 보면 ‘스랑하다’의 양의는 15세기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17세기 초에 와서 ‘愛’ 하나만으로 변화하여 현대 국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53) 녀교되: 싱각호되

ㄱ. 아니호면 더 병호니 녀교되 버딘 뿌디 업세라 호야(번노 下47)

ㄴ. 아니호면 더 병든 사람이 싱각호되 벗인 뜻이 업다 호여(노연 下43)

‘녀교되’는 ‘녀기-(念) + -오/우되(연결어미)’의 형태 구성으로 ‘여기되, 생각하되’의 뜻이다.

현대국어 ‘여기다’는 중세국어에서는 어형이 ‘너기다’로 쓰였고, 근대국어에서는 주로 ‘너기다’로 쓰였다.²⁸⁾

‘너기다’에 상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 ‘여기다’는 목적어와 그의 보충적 논항을 요구하는 타동사이다. 따라서 그 문형도 ‘무엇을 어떻게 여기다’, ‘무엇을 무엇으로 여기다’, ‘무엇을 무엇이라고 여기다’가 일반적인 형태이다. 중세·근대 국어에서의 ‘너기다’도 이와 같은 문형이 중심이 되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랑하다’는 근대 국어로 오면서 ‘愛’의 의미로 변하였고, ‘싱각하다’는 근대국어로 오면서까지 ‘여기다’의 의미를 지녀 ‘여기다’보다 더 넓게 쓰이고 있다. <老諺>에서 역시 근대국어로 오는 과정에서 ‘너기다’가 ‘싱각하다’로 언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飜老>에서의 ‘녀교되’는 하위문을 후속시키고 있는데 이는 간접 화법의 인용문으로 취급할 수 있다.

(54) 듣줍다: 빅하다

28) 김태곤(2003), “「正俗諺解」에 나타난 어휘 변천 연구”, 『영주어문』6, 영주어문학회, p. 25.

ㄱ. 스승님의 글 듣줍고 후당의 노하든 지비 와 밥 먹기 못고 쏘(번노 上3)

ㄴ. 스승님 께 글 빅호고 學堂의셔 노하든 집의 와 밥 먹기 못고 쏘(노언 上3)

‘듣줍고’는 ‘듣다’의 뜻으로 ‘듣다’의 높임법이다. 상대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는 경어법이 잘 발달된 것은 국어의 특색으로 꼽는 것 중 하나이다. 경어법은 보통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문법적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단어의 선택에서 차이를 두기도 한다. 가령 ‘밥’ 대신에 ‘진지’를 쓰면서 대상을 높이기도 하고, ‘나’ 대신에 ‘저’를 쓰면서 대상을 낮추기도 한다.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도 경어법이 발달했었다. <飜老>에서의 ‘듣줍다’가 그 예이다.

‘듣줍다’는 객체 높임법 중 하나이다. 객체 높임이란 화자가 목적어 명사나 부사어 명사가 가리키는 사람, 일, 사물 등을 높이는 문법 기능을 말한다. 가령 객체를 높이는 말로 ‘니르다’에 대해 ‘슌다, 연줍다’가 있다. 이 말은 현대 국어의 ‘사뢰다, 여쭙다’로 이어진다. ‘보다’에 대해서 ‘뵈다’ 또는 ‘뵈습다’가 있으며, ‘주다’에 대해 ‘드리다/드리웁다’, ‘받다/받줍다’가 있다. 객체 높임법은 이와 같이 주로 ‘-습-’에 의해 실현되었는데, ‘-습-’은 출현 환경에 따라 ‘습, 습, 줍, 슷, 슷, 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앞에서 나오는 ‘스승’의 화자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승을 높이기 위해 ‘듣줍다’가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듣줍다>듣잡다’로 변화하였으며, 동사로 ‘듣줍고, 듣줍디, 듣줍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텃 말씀 듣줍고 즉재 信受호스 버려니와(月釋21:15)

世尊하 願호든 듣줍고져 호노이다(月釋21:64)

그런데 <飜老>의 ‘듣줍다’ <老諺>에 와서 ‘빅호다’로 언해되며 그 의미를 달리 한다. 이는 ‘듣다’가 아닌 ‘익히다(習)’의 뜻이다.

갓가이 빅홀 씨 近 이니(法華5:6)

저근 제브터 빅혼 性이 게을오니(初杜解8:20)

중세 국어에서 ‘學’과 ‘習’의 대역어로 나타나던 것이 17세기에서는 ‘學’의 대역어로 나타나고 18세기에는 ‘ㅎ’이 사라진 형태인 ‘빅우다’로 표기된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지금과 같은 어형인 ‘배우다’로 표기된다. 18세기의 쓰임과 19세기의 쓰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붓그림 품음을 빅우지 말라(女四 3:24)(18세기)

배우다 : 受學(國漢 p.497)

한편 ‘배우다’의 의미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①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다. ②새로운 기술을 익히다. ③남의 행동, 태도를 본받아 따르다. ④경험하여 알게 되다. ⑤습관이나 습성이 몸에 붙다.’²⁹⁾의 다섯 가지로 풀이되어 있어 결국은 ‘學’과 ‘習’이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55) 동모: 벗

ㄱ. 와 그릇 벼를 간슈히고 노연들히 자거든 혼 동모(번노 下46)

ㄴ. 과 그릇 싸를 슈습히고 宮人들히 자거든 혼 벗으로(노언 下41)

‘동무’는 ‘동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老諺>에 와서는 현대 국어의 ‘벗(友)’과 같이 표기되었다.

(56) 버물가: 얼킬가

ㄱ. 띄우물 멀즈시 미라 쏘 노히 버물가 저헤라(번노 上38)

ㄴ. 띄워 멀즈시 미라 쏘 노히 얼킬가 저페라(노언 上34)

‘버물가’는 소멸되고 <老諺>에 와서 ‘얼킬가’로 언해된다.

3. 어휘 소멸

29)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어휘 소멸은 중세국어에서 잘 쓰이던 어휘가 후대에 사라져 소멸된 것을 말한다. 어휘에 따라 근대국어에서 사라진 것도 있고, 근대국어까지 쓰이다가 그 이후에 사라진 것도 있다.

(57) 즉재: 곳

- ㄱ. 자블 스△이에 그 도즈기 즉재 혼 弓手를 살 혀 노하(번노 上30)
- ㄴ. 자블 스이에 그 도적이 곳 혼 弓手를 다가 살로(노언 上27)

‘즉재’는 ‘즉시, 곧’의 의미이다. ‘즉재’는 소멸된 어휘이다.

(58) 어위다: 너르다

- ㄱ. 락요물 구디 허라 이 구싯터히 ㄱ장 어위다(번노 上37)
- ㄴ. 락기를 구디 허라 이 구유 터히 ㄱ장 너르니(노언 上34)

‘어위다’는 중세국어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하나는 ‘①넓다’의 의미이고 나머지 하나는 ‘②너그럽다, 넉넉하다’의 의미이다. 그 쓰임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①넓다

- 東山에 祥瑞 나니 좁던 東山이 어위며(月釋2:28)
- 구림 썬 피흔 ㄱ몹 北너기 어위니(初杜解7:13)
- 어훔 활 : 關(類合 下62)

②너그럽다, 넉넉하다

- 즐거워 빈 어드시며 어위여 衆어드시리라(法華5:47)
- 치위엿 오시 어위오 다 기도다(初杜解23:47)
- 너모 어위여 게을오매 니르디 마를디니라(宣內 2上16)
- ㅁ스물 어위에 흘 거슨 당당이 이 수리오(杜初 10:16)

이 말은 17세기에도 다음 예문과 같이 ‘넓다’, ‘넉넉하다’, ‘너그럽다’의 뜻으로 쓰이고 그 후에 소멸되었다.

大祝奉禮만흔 사르의 대텡이 도이면 너모 너르니라 흐더라(飜小 10:29)

깁고 너른 양이라(宣小 5:23)

치위엿 오시 어위오 다 기도다(杜重 23:47)

므으물 어위에 흘 거슨 당당이 이 수리오(杜重 10:16)

(59) 아니완흔다: 사오납다

ㄱ. 못흐던 거시니 엇디 도흔 사름 아니완흔 사름(번노 上48)

ㄴ. 못흐노니 엇디 이 도흔 사름 사오나온 사름인 줄을(노언 上43)

‘아니완흔’은 ‘사납다, 난폭하다, 나쁘다’의 뜻으로 ‘아니완흔다’로도 쓰였다. <飜老>에서는 원문 ‘外人’을 ‘아니완흔 사름’, ‘사오나온 사름’ 등으로 번역했다. <老諺>에서도 ‘아니완흔 사름’ 과 ‘사오나온 사름’으로 쓰였는데 중간본에 와서 ‘아니완흔 사름’이란 말은 일체 쓰이지 않는다. ‘아니완흔’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오나온’은 外人이 아닌 형용사의 의미로 쓰인 경우도 있다. <飜老>에서 ‘모딜다(모딘)’ 즉, ‘모질다, 나쁘다’의 의미로 표기되던 것이 <老諺>에 가서 ‘사오나온’으로 표기되었다.

17세기에 쓰인 형용사 ‘사오납다’의 용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³⁰⁾

① 惡하다

그 사오나오믈 브리고 어딜믈 존기예(警民 序2)(改刊本)

사오나오믈로써 어딘이를 업쇼이 너기다 말며(警民 20)(改刊本)

② 거칠다(疏)

사오나온 밥이며 물을 마시고(家諺 9:10)

③ (냄새가) 지독하다, 고약하다

빅사름이 내의 사오납기로써 말려 흐더니(新續 烈8:55)

④ (품질이) 粗惡하다

사오나온 이는 언머 깎세 풀다(老諺 下53)

30)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 박이정, pp.245-250.

⑤ 瘠薄하다

사오나온 빛과 늘근 좡을(續三 孝22)

⑥ 허름하다

오술 사오나이 흐리도 계시며(正俗 25)

⑦ (재주 등이) 변변치 못하다

사오나온 지조 께물(杜重 19:12)

사오나온 물 얼굴을 분변흐는 법이라(馬諺 上6)

⑧ (몸, 건강 등이) 나쁘다, 심하다

지아비 사오나온 병을 어덧거늘(新續 烈2:32)

⑨ 凶하다(좋지 못하다)

도흔 희에는 죽도록 빅브르고 사오나온 희에도 주구물 면흐느니(正俗 21)
(奎章閣本)

4. 어형 변화

어휘 가운데는 자음이나 모음이 바뀌거나 연접된 음절의 자리가 서로 바뀔에 따라 어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60) ㅁ슴: ㅁ음

ㄱ. 노티 ㅁ슴대로 쓰거든 저는 얼운다이 정면 좌애(번노 下54)

ㄴ. 놈들의 ㅁ음대로 쓰게하고 저는 그저 얼운다이 정면으로 안자(노언 下54)

‘ㅁ슴’은 ‘ㅁ슴>ㅁ음>ㅁ음>마음’으로 변화했는데 3가지의 의미로 세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① 마음

하늬 ㅁ슴물 뉘 고티스 불리(龍歌 85章)

孝道흐실 ㅁ슴애 後스날을 分別흐샤(月印 上17)

빈 비예 ㅁ슴 노퍽뎌 주린 버미긱고(野雲47)

②심장, 염통

빅를 뵈고 ㅁ슴물 썬혀내야 魂神을 이바드며(月釋23:73)

헝다가 그 막스물 듯게 아니코 곧 블로 그 모물 뵈면(救急 上8)

③속

미친 가히 물인 도기 막스매 드리(救簡6:39)

<淸語>에 와서 한자어 ‘任意’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①의 의미로 보여진다.

ㄷ. 제 任意로 賞 줄제 (他)(청어 下7-22)

(61) 어버시 : 어버이

ㄱ. 올헝니 우리 어버시 나를 헝야 비호라 헝시느다(번노 上6)

ㄴ. 올헝니 우리 어버이 날로 헝여 비호라 헝느 니라(노언 上6)

(62) 구시: 구유

ㄱ. 막·요·물 구·디 헝·라 ·이 구·싯·터·히 ㄱ·장 어·위·다(번노 上37)

ㄴ. 막기를 구디 헝라 이 구유 터히 ㄱ장 너르니(노언 上34)

‘구시’와 ‘구유’는 모두 명사로 ‘구슈, 구슈, 구유’ 등의 형태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쓰임의 예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구시에 주서 버라에 다르니(南明 下63)

기르느 개 빅여 ㄱ리 이셔 쏘 헝 구유에 먹이니(五倫 4:49)

(63) ㄱ술: ㄱ울

ㄱ. ㄱ술헝느 ㄱ리 채여 던회 거두디 못하니 이런 전츠로 우리도(번노 上53)

ㄴ. ㄱ울헝느 ㄱ리 썬여 田疇를 거두디 못하니 이런 전츠로 우리도(노언 上47)

‘ㄱ술’은 ‘가을’을 의미한다. <老諺>에 와서 ㅅ이 사라진 형태인 ‘ㄱ울’로 언해 되었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의 용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ㄱ술헝 霜露ㅣ와 草木이 이울어든 슬픈 막스미 나느니(月釋序 16)

ㄹ숯 하느리 곤흔 뵈 이 第一 ㄹ뉘니(蒙法 40)

ㄹ숯 들와 붉 고지 그지업슨 ㅼ들(金三 2:6)

ㄹ올 히어나 나라히어나(釋譜 9:40)

ㄹ올 안헛 노픈 소니(初杜解 15:43)

ㄹ올흔 ㄹ숨아로미(初杜解 20:19)

(64) 마순: 마은

ㄱ. 내 쇼 히로니 올히 마스니오 칠월 열닐웻 날 인시예(번노 下71)

ㄴ. 내 쇼 히로니 올히 마은이오 칠월 열닐웻 날 인시예(노언 下64)

‘마스니오’는 ‘마순(四十) + -이오(연결어미)’의 형태구성이며 ‘마흔 살이고’의 뜻이다. <老諺>에 와서 ‘마은이오’로 언해되었다. △이 사라진 결과로 보인다. 한편 <淸語>에 와서는 ‘마흔이라’로 언해되어 현대국어에서의 ‘마흔’과 차이가 없다. ‘마순’이 ‘마흔’으로 변한 것은 ‘설흔’에 유추³¹⁾한 현상이다. 이는 ‘사을, 나을’이 ‘사흘, 나흘’로 어형이 변한 것과 비슷한 변화이다.

ㄷ. 나늘쇼 히니 올히 마흔이라 七月 十七日 黃時예(청어 下8-20)

(65) 스시: 스이

ㄱ. 자블 스시예 그 도즈기 즉재 흘 弓手를살 혀 노하(번노 上30)

ㄴ. 자블 스이예 그 도적이 곳 흘 弓手를 다가 살로(노언 上27)

‘스시’는 ‘사이’의 뜻으로 ‘스시>스이’ 과정을 거쳐 ‘사이’가 되었다.

(60)~(65)는 모두 ‘△’의 소실을 보여준다. 한글 창제 당시에는 존재했지만 그 뒤로 문헌상에서 자취를 감춘 글자를 소실자라고 하는데, 소실자가 생기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애초에 음운적으로 존재 가치가 없는 글자일 경우에 소실된다.

31) 어떤 낱말이나 문법 형식이 그와 비슷한 다른 낱말이나 문법 형식을 본으로 하여 만들어지거나 달라지거나 하는 과정을 유추(analogy)라 한다.

둘째, 어떤 이유로 음운체계에서 그 소리가 사라진 글자일 경우에 소실된다.

△은 훈민정음 17초성체계에 들어 있는 자음으로서 半齒音이라 불리운다. 이 글자는 한글 창제 후부터 임진왜란까지 약 150여 년 동안 쓰였는데 한자음 표기에서는 소위 ‘日’字母를 적는 데 썼고, 국어를 표기하는 데도 널리 사용되었다. 이는 15세기 중엽에 ㅅ과 混記되어 사용되기도 했는데 마찰성의 약화로 나타난 ㅅ음의 동요로 한동안 지속되다가, 마침내 마찰성의 완전 상실을 뜻하는 ㅇ으로의 변화나 그 원형인 ㅅ으로의 복귀를 통해 종결된다.

- ㄱ. △ > ㅇ : ㅅ슴(心) > 마음 ㅅ술(秋) > 가을 처삼(初) > 처음
ㄴ. △ > ㅅ : ㅅ슴(胸) > 가슴 한숨(息) > 한숨

위와 같은 현상은 <飜老>와 <老諺>의 비교에서도 보인다. <飜老>에는 ‘△’이 사용되고 있는데 <老諺>에 와서는 예외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쓰이지 않는다. 음운 z의 소실과정의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스이’와 ‘어버시’와 같은 존재는 16세기에 음운 z가 이미 소실과정에 있었다는 국어의 음운사적인 사실과 일치할 보여준다. <老諺>에서부터는 ‘△’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66) 아릅: 아릅

- ㄱ. 인 텃느니 ㅅ 아릅 저울 브리료 이갑시 일텃커다(번노 下57)
ㄴ. 인 텃느니 ㅅ 감히 아릅 저울 브리오 이 갑시 일텃커다(노언 下51)

‘아릅’은 ‘개인(個人), 사적(私的)’의 뜻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사로 만든 저울’을 뜻한다.

(67) 드손 물: 더온 물

- ㄱ. 몬저 혼 사발만 드손 물 가져오라 내 ㅅ 시서지라(번노 上61)
ㄴ. 몬저 혼 사발 더온 물 가져오라 내 ㅅ 시서지라(노언 上55)

‘드손 물’은 ‘더온 물’로 언해되면서 ‘·’가 쓰이지 않았다. 여기서 ‘·’가 쓰이

지 않은 것은 ‘·’의 소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의 ‘·’표기의 혼란을 보여주는 듯하다.

(66)~(67)에서 주목되는 것은 ‘·’의 표기이다. ‘·’모음은 16세기에 제2음절 이하의 위치에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18세기 후반에 와서는 어두에서도 사라져 가는 과정을 밟았다. ‘·’가 갖는 문자 특유의 보수성으로 인해 20세기 초반까지도 그 모습을 나타내나 1930년 조선총독부령 제2회 보통학교언문철자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의 음가와 그 음운적 지위는 이보다 훨씬 전에 이미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 <飜老>와 <老諺>에서는 ‘·’와 ‘-’가 심한 혼란을 보여준다. ‘-’모음이 나타나야 할 곳에 ‘·’가 쓰이는 경우에 비해 ‘·’가 쓰일 곳에 ‘-’가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제1음절에서 ‘·>ㅏ’의 변화를 보여 주는 ‘해여브리고<히야브리고>라든지 ‘자세히<즈세히>와 같은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제2음절 이하에서의 ‘·’³²⁾음의 소실로 ‘·’와 ‘-’의 대립에 의한 모음조화가 파괴되는가 하면 ‘ㅏ’와 ‘ㅑ’의 대립이 무너진 경우도 있다. 부동사 어미 ‘-아/-어’와 ‘잇-’이 축약된 형식이 <飜老>에서는 ‘-얏-/엿-’의 형태를 보이는데 <老諺>에서는 ‘-엇’이 주가 된다. 동사 ‘ㅎ-’ 아래에 쓰이는 부동사어미 ‘야-’도 ‘-여’로 나타나기도 한다.³³⁾

(68) 늘씨: 씨늘

ㄱ. 넓디 못홀 거시오 杭州치는 늘씨 혼가지오 蘇州치는(번노 下25)

ㄴ. 넓디 못홀 씨시오 杭州치는 씨늘히 곳고 蘇州치는(노언 下25)

‘늘씨’는 ‘날 줄(經, 가로 줄)과 씨 줄(緯, 세로 줄)’을 말한다. <飜老>에서 ‘늘씨’로 언해되던 것이 <老諺>에 와서 ‘씨늘히’로 언해되고, <淸語>에 와서는 ‘쫘실’로 언해됨을 보여준다.

이는 <老諺>에서의 음절도치와 함께 자음자의 합용 병서를 보여준다. 즉, <老

32) ‘·’모음이 소실되자 ‘·’를 대체한 모음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ㅏ’모음이고, 그 다음이 ‘-’모음이다. 이 밖에 ‘ㅓ, ㅕ, ㅑ, ㅣ’로 대체된 것도 있다. ‘·’는 대체로 제1음절에서는 ‘ㅏ’모음으로, 그리고 제2음절에서는 ‘-’모음으로 대체되었다.

33) 강신항(2000), 『國語의 譯學』, 서울대학교출판부, p.186.

諺>에서의 합용 병서는 二字 合用에 한한다. <翻老>에서 볼 수 있던 ‘𪛗, 𪛗’과 같은 三字 合用은 예외 없이 이자 합용으로 교체되었다.

ㄷ. 낚지 못하고 杭州비단은 쫘 실이 고로고 蘇州비단은(청어 下6-11)

(69) 짓글히다: 짓괴다

ㄱ. 더너기 몬져 ·라 사르미 짓글휴믈 크(번노 下36)

ㄴ. 더편이 몬져 ㅅ라 사름이 짓괴기를 크(노언 下33)

‘짓글휴믈’은 ‘짓글히-(ㅍ) + -오/우口(동명사형) + -을’의 형태구성으로 ‘짓거리는 것’의 뜻이다. <老諺>에 와서 ‘짓괴기를’로 언해되었다.

‘짓글휴믈’의 기본형은 ‘짓글히다’, ‘짓괴기를’의 기본형은 ‘짓괴다’로 모두 ‘지껄이다’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짓괴다’는 ‘짓궤다’로도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해 아히들히 도르혀 짓글혀(翻朴 上18)

너희 둘히 슬리야 짓궤디 말고(老諺 下11)

(70) 못갑: 물갑

ㄱ. 깁 미 흔 피레는 못갑시 두돈이오(번노 上13)

ㄴ. 깁 미 흔 필에는 물갑시 두돈이오(노언 上12)

‘못갑’은 ‘물들이는 값, 염색하는 값’을 말한다. <翻老>에서 ‘깁’, ‘물’, ‘길’ 등의 명사에 속격형태 ‘시’가 부가될 때 말음 ‘ㅂ’, ‘ㄹ’이 탈락되던 중세적 용법은 <老諺>에서는 지양되어 현대어처럼 ‘ㅂ’, ‘ㄹ’을 유지한 ‘물’로 표기되었다.

한편 <淸語>에서는 ‘못갑’이 ‘물드리다(물들이다)’의 동사로 쓰였다.

ㄷ. 깁은 흔 ㅈ에 물 들일제 주는 갑시 두돈이오(청어 上1-19)

(71) 다솥: 다습

ㄱ. 특 록 내 분 디 사 온 절 다 악 대 물 흔 피 리 쉬 다 솥 서리오(번노 下16)

ㄴ. 드티여 내 본티 사온 절다악대물 혼 필이 나히 다습이오(노언 下14)

‘다솻’은 ‘다습, 다웃’으로 표기되던 것으로 ‘다섯’을 의미한다. <老諺>에서는 ‘다습’으로 표기되었다. ‘다습’과 ‘다습’의 용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원편 다리에 印 친 보람 잇는 다습에 절다 불친 물 혼 필을(淸老 6:1)

다솻 가마괴 디고(龍歌 86章)

다솻 줄깃 蓮花를 사아(釋譜 6:8)

다솻 물이 셔셔(女四解 4:24)

고기 길히 다솻 자히나 흥여(五倫 1:29)

절다악대물 혼 필이 나히 다습이오(老解 下 14)

(72) 나죄: 나조ㅎ

ㄱ. 제 겨집과 아히 이받느니 혼나래 나죄 도의도록(번노 下55)

ㄴ. 제 겨집과 즈식을 치니 혼나래 나조히 다드라(노언 下49)

지금은 ‘夕’의 의미로 ‘저녁’이라는 어휘가 쓰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나조’라는 어휘가 쓰였다. 18세기까지 ‘나조’로 쓰이다가 ‘저녁, 전역’으로 쓰였고 20세기 초에 와서 ‘저녁’으로 쓰였다. ‘나중>나조’와 같은 변화를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飜老>와 <老諺>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나죄마다 머리 조사(三綱. 孝21)

幽深 혼 남근 나조히 고지 하도다(初杜解7:7)

아춤에 菜山 혼고 나조히 釣水 혼새(丁克仁, 賞春曲)

(73) 굿굿다: 컷컷하다

ㄱ. 굿굿다커니와 이 혼 가지는 시늘히 곱디 아니 혼고(번노 下62)

ㄴ. 컷컷하거니와 이 혼 가지는 씨늘히 곱디 아니 혼고(노언 下56)

‘굿굿다’는 원문 ‘勻淨’의 언해로 ‘깨끗하다’의 뜻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의성의태어와 관련한다.

(74) 시울: 시웁

ㄱ. 네 이 누른 붓 니핀 활흔당 가져다가 시울 연즈라(변노 下30)

ㄴ. 네 이 흔 당 누른 붓 님힌 활 가져다가 시웁 연즈라(노연 下27)

‘시울’은 ‘①현(絃) ②활시위’의 의미로 쓰였는데 둘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거문고 시웁 언저 風入松이야고야(松江, 星山別曲)

늘근 활시웁 닉이시던 일을 드르시고(重內訓2:89)

몬져 조각을 시웁와 거플 앓고(救簡1:2)

한편 <清語>에서는 현대 국어와 같이 ‘시위’로 언해되었다. <飜老>에서는 ‘시울’로 <老諺>에서는 ‘시웁’으로 쓰이다가 <清語>에 와서 ‘시위’로 나타났다.

‘시웁’은 중간본에서 복합어로 계속 쓰였는데 받침의 ‘ㄱ’소리가 사잇소리의 기능을 대신하는 듯하다.

네 이 누른 붓 쓴 활을 갖다가 시위 연즈라(清語 下6-17)

시웁갓(重老 下63)

이와 같은 ‘시웁’은 <老諺> 上·下 전체에서 ‘시웁’이라고 표기된다. 그러나 <飜老>에서는 ‘시울’과 ‘시웁’으로 표기되는데 ‘시울’은 전반부에 나타나고, ‘시웁’은 후반부에 나타난다.

(75) 날회여: 날호여

ㄱ. 예 오노 내 흔 버디 떠디여 올식 내 길조차 날회여 녀 기들워(변노 上1)

ㄴ. 여기 오노 내 흔 벗이 이셔 떠더 오매 내 길홀조차 날호여 녀여 기드려

(노연 上1)

‘날회여’는 ‘천천히, 느리게’의 뜻이다. ‘날회여’, ‘날호여’ 모두 부사어이다.

색르며 날호여 흠애(宣小5:94)

버거 날회야 도리호고(救簡1:6)

날호여 江南의 집 가 집마다 보시호여(朴解 下4)

<淸語>에서는 ‘천천이’로 표기되었다.

ㄷ. 여귀 온다 호 벗이 셔져 음애 내 천천이 기다려 (청어 上 1-1)

(76) 증승: 증싱

ㄱ. 증승 모라 오게 호고 나와 호 벗과 호야 몬져 가(번노 上66)

ㄴ. 증싱 모라 오게 호고 나와 호 벗이 몬져 가(노언 上66)

현대 국어 ‘증승’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중세 국어 어형은 ‘증싱’이었다. 이 말은 원래 불교 용어에서 온갖 생물을 뜻하던 ‘衆生’에서 온 말이다. 그런데 이미 중세 국어에서 분화를 해서 불교 용어로서는 한자 표기로만 나타나면 ‘증승’을 뜻할 때는 한글 표기 ‘증싱’으로만 나타난다. <翻老>와 <老諺>에서 ‘증승, 증싱’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77) 두의티기: 뒷티기

ㄱ. 네 두의티기 옷 모르거든 드레 우회 호 무식 벽을 미라(번노 上32)

ㄴ. 네 뒷티기 아니못호거든 드레 우회 호 덩이 벽을 미라(노언 上32)

‘두의티기옷’은 ‘두의티-+-기(명사형어미)+옷(강세첨사)’의 형태구성이다. 이는 ‘뒷집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老諺>에 와서는 명사형 어미 ‘-기’가 없어진 형태인 ‘뒷티기’로 언해되었다.

(78) 겨집: 계집

ㄱ. 물 기리 아니호고 다른 겨지비 물 기리 호느니(번노 上36)

나. 물 갖디 아니호고 다만 계집이 물 갖기 호되(노언 上36)

중세 국어에서 ‘겨집’은 ‘女子’를 뜻하는 평어이면서 ‘婦人’과 ‘妻’의 의미를 나타내는 다의어였다.

①女子

女子는 겨지비라(月釋 1:8)

스나희와 겨집이 둥인 든니미 잇디 아니호얏거든(宣小 2:45)

婢는 겨집쥬이라(釋 13:19)

②婦人

婦人은 겨지비라(月釋 21:198)

使君이 스스로 겨지비 잇느니(杜初 15:30)

다른 겨지비 물기리 호느니(飜老 上36)

③妻. 아내

如來 太子時節에 나를 겨집 사므시니(釋 6:4)

머리터틀 므자 남진 겨지비드외요니(杜初 8:67)

저제 든니며 비니 그 겨집은 아디 못호거늘(宣小 4:31)

이는 17세기에도 중세국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었으나 어형변화를 보여 ‘계집’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던 것이 19세기에는 ‘계집’으로만 쓰였고 그 의미 또한 ‘女子’와 ‘婦人’의 뜻으로만 쓰였다. 그런데 그 의미는 여자와 부인을 낮잡아 부름이었다.

①女子

계집의회(國漢 p.385)

②婦人

맞춤 호 계집을 파는 직 잇거늘(太上 1:27)

이 말은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女子’와 ‘비천한 사람의 妻’를 낮잡아 부르는 의미였고, 현재는 ‘女子’와 ‘妻’를 낮잡아 부르는 말로 쓰인다.

(79) 수울: 술

ㄱ. 수울 픈는 됴수 잇느니 이 내 버디니 네 아는다(번노 上49)

ㄴ. 술 픈는 됴 잇느니 이 내 벗이러니 네 아는다(노언 上44)

‘수울 픈는 됴’은 ‘술 파는 곳’을 의미한다. ‘수울’을 <老諺>에 와서 ‘술’로 표기하면서 ‘술’이라는 자립형태소를 인식하였다.

(80) 거의: 계요

ㄱ. 捕盜宮이 弓兵 더블오 나사가 거의 시십 리만 싸해(번노 上29)

ㄴ. 浦盜宮이 弓兵을 더블고 나아가 빠라 계요 二十里 싸히(노언 上26)

‘거의’는 부사어 ‘거의’의 뜻으로 ‘거스’로도 쓰였는데 <老諺>언에서는 ‘계요’로 쓰였다. ‘계요’는 ‘겨우’의 뜻이다.

어미 죽거늘 三年을 피 나기 우리 거의 죽게 드외엿더니(三綱. 孝19)

흔 간 방에 다숫 사람이 계요 안는 거시여(朴解 上37)

(81) 도타: 도흐니라

ㄱ. 도타 닐오미 올타 앓까 ㄱ 이 됴엿 더 나그내도(번노 下5)

ㄴ. 도흐니라 닐움이 올타 앓까 ㄱ 이 됴엿 더 나그내도(노언 下5)

‘도타’는 동사로서의 의미와 형용사로서의 의미가 있다. 전자는 ‘좋아지다, 낫다’의 의미를, 후자는 ‘좋다’의 의미를 지닌다.

① 동사로서의 ‘똥다’

깃거제 가져가야 브르스븐니 도커시닐(月釋2:9)

세 번 시수를 디나디 아니흐야 똥느니다(救急 上8)

② 형용사로서의 ‘똥다’

곶 도코 여름 하느니(龍歌 2章)

술이 도토 아니흐오니(新語3:26)

여기서는 모두 형용사의 의미로 ‘좋다’의 뜻인데 <飜老>에서 ‘도타’로 표기되던 것이 음절이 길어져 ‘도흐니라’로 표기되었다. ‘도타>좋다’의 변화 과정을 거쳤다.

이상 고유어가 고유어로 변한 중요 어휘를 추출해 보았다. 이를 크게 4가지 유형 즉, 표기법의 변화, 어휘의 교체, 어휘의 소멸, 어형의 변화로 인해 바뀐 것으로 나누고 변화 과정에 따라 보이는 국어적인 사실도 함께 기술하였다.



IV. 결론

서론에서 미리 말했듯이 이 연구는 「老乞大」를 하나의 원본으로 하여 언해한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어휘를 비교함에 있어서 어휘 변천 과정을 살펴 고자 하는 작업이었다. 「翻譯老乞大」가 언해 된 후 1세기 반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老乞大諺解」가 언해됨으로써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오는 시기의 어휘 변천을 연구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II장에서 고유어가 한자어로 변한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내려오는 동안에는 순수한 국어 단어들에 눈에 띄게 한자어로 대체된 것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1세기 반의 간격을 지니고 있는 두 문헌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이다.

「翻譯老乞大」에서 「老乞大諺解」로 오면서 한자표기의 경향은 길어지며 그것을 수치화 하면 약 2.5배에 달하는 수이다. 여기서는 고유어의 한자어 대체 이유를 3가지로 들어 설명했다.

첫째, 역어 및 그 표기의 통일을 위함이다.

둘째,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는 중국어 학습서인 「老乞大」의 번역이므로 가능한 한 「老乞大諺解」에 와서 중국어 텍스트에 보이는 한자어에 충실하려 했을 것이다.

셋째, 「翻譯老乞大」에서 사용한 어휘가 소멸 혹은 소실되어 한자어로 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비교에 있어서 한자어 사용의 증가요인은 위 세 가지 요인으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두 문헌의 비교에 있어 한자표기가 증가했음에 시간적 요소가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텍스트의 내용, 언해자의 표기 태도 등과도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와 대립되는 내용으로 「翻譯老乞大」에서는 한자로 표기되던 것이 「老乞

大諺解」로 와서는 한자어로 표기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이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4件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서의 쓰임을 모두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고유어의 변화에 대하여 다루었다. 근대 국어 어휘는 중세 국어 어휘를 이어받으면서 언어 내적·외적 변화를 겪으면서 형성되는데 양자 간 어휘는 극심한 단절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휘의 변천 과정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다른 영역에 관한 기술과 중복되는 점이 없지 않다. 어휘에 관한 기술에서 특히 중요한 어휘의 생성은 형태론에서의 기술과 대부분 중복된다. 음운에 관한 논의에서도 단어를 단위로 하여 기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문법에 관한 논의에서도 단어를 단위로 하여 기술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또한 어휘는 어휘장(lexical field) 속에 놓이기 때문에 다른 어휘에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 의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비교에 있어서 고유어가 고유어로 변한 어휘를 모두 추출해 내고 거기서 다시 중요한 어휘를 추려내어 살펴보았다. 고유어가 고유어로 변한 어휘를 크게 1. 표기법의 변화 2. 어휘의 교체 3. 어휘의 소멸 4. 어형의 변화로 인해 바뀐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두 문헌의 어휘를 비교 연구하면서 시대를 달리 하며 보이는 국어사적 특징도 함께 기술하였다.

어휘목록을 나열하면 ‘너르메, 글위를, 독벼리, 날우미, 삿매, 나리, 기피, 너무곤다, 번지스다, 본아즈미, 뜯, 며춧 나리, 골잇씩, 보습히다, 채다, 받다, 빈밥, 점글다, 호다, 이받다, 칙칙히다, 너룻씩다, 덕골, 굿티다, 노ㅎ, 두다, 간슈, 뜨던히다. 뒷터, 녀느, 좃다, 무적, 돛, 먹다, 털, 벗딤, 요제, 갈궁쇠, 당상, 혼미, 데, 해자히다, 권즈, 양지, 야즈, 솔웃, 고든, 흥즈, 앓가사, 햅마, 점다, 스랑, 녀교딤, 들줍다, 동모, 버물가, 즉재, 어위다, 아니완히다, 므슴, 어버시, 구시, ㄱ술, 마순, 슌시, 아릅, 득순 물, 늘씨, 짓글히다, 못갑, 다숫, 나죄, 굿긱다, 시울, 날회여, 즈승, 드의티기, 겨집, 수울, 거쉬, 도타’이다. 이는 모두 81件 이다.

두 문헌의 어휘 비교 결과 나타나는 국어사적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翻譯老乞大」에서 「老乞大諺解」로 오면서 분철표기를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翻譯老乞大」에서 「老乞大諺解」로 오면서 명사 어간을 고정적으로 표기하

는가 하면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기도 한다.

또, ‘△’의 소멸, 二字 합용 병서, 7중성법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翻譯老乞大』에서 『老乞大諺解』로 오면서 ‘△’의 소실로 인해 ‘△’이 보이지 않게 되는가 하면 『老乞大諺解』로 오면서 자음자는 예외 없이 二字 합용으로 교체된다.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이는 것이 7중성법이다. 7중성이라는 것은 8중성으로부터의 ‘ㄷ’의 예외를 말한다. 이것은 음절말 위치에서의 ‘ㅅ’과 ‘ㄷ’의 중화의 결과로 생겨난 표기법의 변화이다. 실제로 이 위치에서 발음되지 않게 된 것은 ‘ㄷ’이 아닌 ‘ㅅ’인데도 불구하고 표기법에서는 반대로 ‘ㄷ’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老乞大諺解」에서 ‘ㅅ’과 ‘ㄷ’의 중화의 내용은 현대 국어에 있어서의 그것과 상당히 다를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발음 표면에서는 ‘ㄷ’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말 ‘ㅅ’ 받침의 것이나 ‘ㄷ’ 받침의 것은 어말 또는 다른 자음 앞에서는 다같이 ‘ㄷ’으로 발음되는 반면, 명사 말음에 한해서는 형태음소 차원에서 ‘ㄷ’이 ‘ㅅ’에 통합되어 ‘ㄷ’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老乞大諺解」에서의 중화는 발음 표면상에서의 중화일 뿐이다.

‘스랑하다’의 의미축소와 ‘흐마’의 어휘 교체 현상도 발견된다. 가령, ‘스랑하다’는 본래 ‘思’와 ‘愛’의 의미를 부의로 가진 다의어였다. 그런데 ‘스랑하다’는 15세기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17세기 초에 와서 ‘愛’ 하나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생각하다’의 어휘로 교체된다. ‘흐마’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흐마’는 본래 ‘既’를 의미하는 동시에 가까운 미래의 개연성이 높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부사로 쓰이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 단어는 『老乞大諺解』에 와서 전자의 의미는 ‘이미’에게 독점 당하고 후자의 의미 즉, 가까운 미래의 개연성이 높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만 쓰였다.

또 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의성의태어도 발견할 수 있었다. 현대 국어에서 의성의태어가 풍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세 국어 문헌에서는 의성의태어가 풍부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의성의태어가 발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의 비교에 있어서 중세 국어 문헌인 「翻譯老乞大」에서 간간히 보이는 의성의태어가 근대 국어 문헌인 「老乞大諺解」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이는 문헌의 성격이 의성의태어를 보여주기에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나 고려되기 때문이다. 「翻譯老

乞大」에서 ‘칙칙홀’은 국어의 의성의태어에 대응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듣줍다’와 ‘빅히다’의 비교에서 객체 높임법도 목격된다. 객체 높임법은 주로 ‘-습-’에 의 실현되었는데 이는 환경에 따라 ‘습, 줍, 술, 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에서 ‘듣줍다’는 「老乞大諺解」에서 ‘빅히다’로 언해됨으로써 ‘듣다’의 높임법이 아닌 ‘익히다(習)’의 의미로 변화였다.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 두 문헌을 비교하면서 「翻譯老乞大」의 어휘가 「老乞大諺解」에서 어형을 어떻게 달리하며 언해되었는지 고찰하면서 그에 따른 모든 어휘를 완전하게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단순히 시간적인 요인 외에도 언해자의 표기 태도, 어휘 선택 등과도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문헌은 1세기 반이라는 간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의 어휘를 비교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또한 각 어휘의 변천 과정에 따라 국어의 특징적 사실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현대 국어에 이르렀는지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 두 문헌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로의 어휘 변천 과정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았다. 노걸대언해류만 해도 그 종류가 많은데 두 문헌에만 의존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同時代의 다른 문헌들과도 비교 고찰한다면 더 많은 어휘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 연구자에게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자 료

『翻譯老乞大 卷 上』 중앙대학교 대학원 영인, 1972.

『翻譯老乞大 卷 下』인하대학교 부설 인문과학연구소 영인, 1975.

『老乞大, 老乞大諺解(上·下)』,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 2003.

백응진(1997), 『老乞大』, 한국문화사.

■ 논저

강신향(2000), 『韓國의 譯學』, 서울대학교출판부.

강재진(1982), “노걸대 박통사 연구 3-1”, 『중국어문학』, 5, 영남대학교.

고영근(200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기주연(1986), “노걸대의 언해상 비교연구”, 『송실어문』, Vol.3 No.-, 송실어문학회.

김동소(198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김문웅(1984), “근대 국어의 표기와 음운“, 『한글』, Vol.- No.185, 한글학회.

_____ (1987), 『근대국어 문법형태의 변천 -노걸대언해와 중간노걸대언해의 비교를 통하여-』, 효성여자대학교 출판부.

권숙도(1985), “노걸대체서의 번역어에 나타난 서법어미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김언주(1989),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연구 -형태, 통어면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지』, Vol.16 No.0, 문창어문학회.

김완진(1976), “노걸대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연구총서』, 31, 한국연구원.

김종훈 외(2008), 『한국어의 역사』, 집문당.

김종택(1992),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 김중진(1999), 『국어표기서 연구』, 태학사.
- 김태곤(2002), 『중세국어 다의어와 어휘변천』, 박이정.
- _____ (2008), 『국어 어휘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 _____ (2003), “正俗諺解에 나타난 어휘 변천 연구”, 『영주어문』6, 영주어문학회.
- _____ (2005), “국어어휘의 변천연구 8”, 『백록어문』20-21, 백록어문학회.
- 김형철(1977),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_____ (1980),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 『문학과 언어』, 1-1, 문학과 언어연구회.
- 김희선(2007),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연결어미 비교 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기심·고영근(200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광우(2009), 『고어사전』, 교학사.
- 박향숙(1992), “노걸대 언해류의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희용(1988), “노걸대의 언해와 번역에 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서재극(1980), 『중세국어의 단어족 연구』, 계명대.
- 서재극(1967), “번역노걸대의 어휘”, 한국어문학회연구논총.
- 석주연(1998), “노걸대류 박통사류 이본들의 ‘-거/어-’에 대하여”, 『관악어문 연구』23-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성광수(2001), 『국어의 단어형성과 의미해석』, 월인.
- 손성지(1992),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어미체계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송 민(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국립국어연구원.
- 신한승(1992), “노걸대 언해본의 연구(3) -어휘변천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Vol.11, No.0, 한성대학교 한국어문학부.
- 심재기(1998), 『국어 어휘의 기반과 역사』, 태학사.

- 안병희·이광호(1997),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양태식(1980), “「번역노걸대」의 서법소”, 『논문집』25, 부산수산대학교.
- 유창돈(1961), 『국어변천사』, 통문관.
- _____ (1971), 『어휘사연구』, 서울:선명문화사.
- 이기문(1986),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승욱(1973), 『18세기 국어의 형태론적 특징』, 『국어문법체계의 사적연구』, 일조각.
- 이익섭(1997),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 이향주(1989), “번역노걸대 박통사범례고 I”, 『어문논총』10, 11, 전남대학교.
- 정 광(2006),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 정병량(1998), “노걸대 언해류의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5), 『근대국어문법론』, 대학사.
- 한말연구학회(1998), 『국어사 강독선』, 도서출판 박이정.
- 허 용(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홍사만(2004), 『국어 어휘의미의 사적변천』, 한국문화사.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Vocabulary of
[Beonyeok Nogeoldae「翻譯老乞大」] and [Nogeoldae-eunhyae「老乞大諺解」]

Song, Gyeong-mi

major in Korean Education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g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vocabulary used in the two old books "[Beonyeok Nogeoldae 「翻譯老乞大」] and [Nogeoldae-eunhyae「老乞大諺解」]" which are annotated editions of [Nogeoldae 「老乞大」] and ideal material that enables us to grasp easily vocabulary handed down from the Middle Ages to Modern Times, because they were annotated and edited in the early 16th and in the late 17th century respectively. Namely, this study focused on and investigated diachrony of vocabulary used in [Beonyeok Nogeoldae 「翻譯老乞大」] and [Nogeoldae-eunhyae「老乞大諺解」]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history.

Chapter II presents vocabulary which turned from native Korean words into word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Namely, this chapter looked into how words used as native Korean words turned into word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presents both a list and sample sentences by dividing them into two cases of replacing native Korean phrases with phrase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and replacing native Korean words with word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On the other hand, this chapter

investigated four words which turned from native Korean words into word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ChapterⅢ investigated a process of replacing native Korean words with native Korean words. This study picked out 81 words and analyzed aspects of those words by comparing the two editions: that is, how those words changed word form and how those words were annotated. As a result of comparison,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orthographic change, word replacement, word disappearance and word form change and also found result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history. ChapterⅢ also introduces sample sentences including those words.

This comparative research of [Beonyeok Nogeoldae 「翻譯老乞大」] and [Nogeoldae-eunhyae「老乞大諺解」] found that although modern times' Korean vocabulary inheriting vocabulary of the Middle Ages has been formed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of language, it does not witness extreme disconnection. And the amount of vocabulary which turns from native Korean words into words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ncreases in accordance as Korean language approaches modern times, which i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orthography and word choice on the part of translator.